



마한역사문화권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

2021. 12. 16(목)

주최·주관



전라남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마한역사문화권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

목 차

발표 1

마한역사문화권 접근과 방향성 /

정재윤(공주대 사학과 교수)

발표 2

마한 연구의 방향성 모색
: 해양문화를 중심으로 /

허진아(전남대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

발표 3

마한역사문화자원 관광자원화 방안 /

김영미(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발표 4

마한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 가야역사문화자원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

서재승(한국경제경영 연구원 박사)

토 론

좌장 임영진

마한연구원장

조영광

전남대 역사교육과 교수

유영광

전라남도 문화자원과장

김은정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단 전문연구원

고병철

전남관광재단 경영지원실 실장

영산강 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접근과 방향성

2021. 12. 16.



공주대학교 정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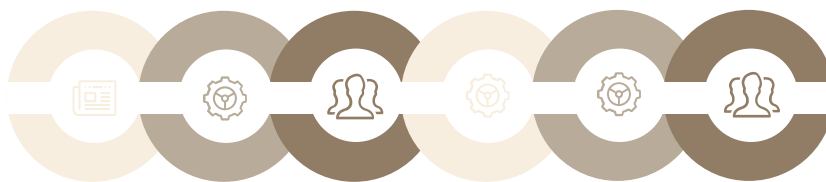
목 차

- 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개발의 필요성
- I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현황
- II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현황
- IV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활성화 방안

I .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개발의 필요성

I .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개발의 필요성 마한역사문화 현황

1)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



역사문화권은 고대 사서에 독립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정치체로부터 형성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한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지정

백제 건국 이후 마한 사회의 지역별 변화 감안 필요 (한강유역권/아산만권/금강유역권/영산강유역권/남해안권)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에 대한 보완 필요

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개발의 필요성 마한역사문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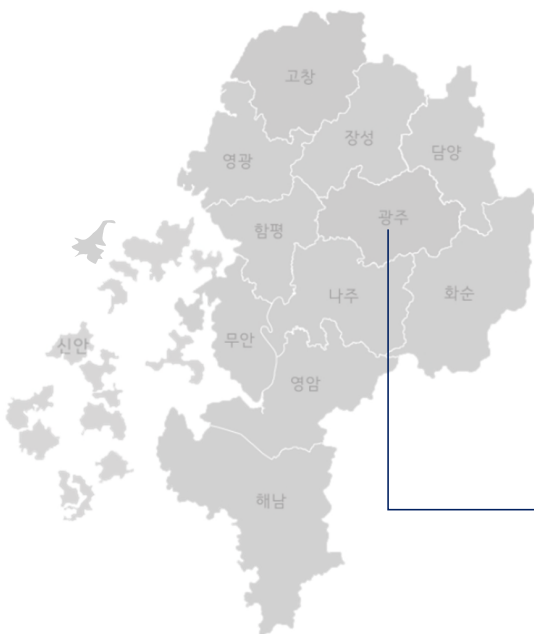
2) 마한역사문화권의 역사적 현황

마한 사회의 시기별 변화

분 기	권 역	주요 유적	주요 토기
초기 (3~1c BC)	아산만권 금강유역권 영산강유역권	아산 남성리 부여 합송리 원주 갈동·신동 광주 신창동 화순 대곡리	점토대토기 흑도창경호
전기 (1~3c전반)	한강유역권 아산만권 금강유역권 영산강유역권 남해안권	김포 운양동 천안 청당동 익산 영등동 해남 군곡리 보성 조성리	경질무문토기 이중구연호 양이부호 조형토기
중기 (3c후반~4c중엽)	금강유역권 영산강유역권 남해안권	아산 박지미래 익산 간촌리 영암 시중 함평 만가촌 담양 태목리	이중구연호 양이부호 조형토기 분주토기 거치문토기 조족문토기
후기 (4c후엽~5c후엽)	영산강유역권 남해안권	고창 봉덕리 나주 반남 광주 동림동 순천 덕암동 고흥 길두리 안동	조형토기 분주토기 거치문토기 조족문토기 유공광구호
말기 (5c말~6c초)	영산강유역권 남해안권	나주 복암리 해남 월송리 조산	분주토기 거치문토기 조족문토기 유공광구호

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개발의 필요성 마한문화권 환경 분석

마한역사문화권의 지리·사회·경제적 현황



전라남도

- 면적: 12,348km²
- 행정구역: 5시 17군, 297읍·면·동
- 인구: 1,840천명(21.7.)
- 예산규모: 9조 2,023억원(21)
- 교통망
 - 철도: 10개 노선, 390.1km(20)
 - 공항: 2개소(무안국제공항, 여수공항)(20)
 - 도로: 6,909개 노선, 10,635km(20)

전남 인구는 절반에 가까운 53% 감소
교통망 및 상하수도 보급 평균 이하

광주광역시

- 면적: 501.13km²
- 행정구역: 5개구 96개 행정동(202개 법정동)
- 인구: 1,456천명(19)
- 예산규모: 6조 2,817억원(21)
- 교통망
 - 철도: 4개 노선, 도시철도 1호선(2호선 건설중)(20)
 - 공항: 1개소(광주국제공항)(20)
 - 도로: 고속도로 4개, 순환로 1개 간선 및 지선(20)

광주 인구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
교통망은 soc 지속 확충 중이나,
도로 포장은 전국 평균 이하

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개발의 필요성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1.6)

□ 사국 중심의 정책 편향을 극복하고 지역역사와 문화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마한사 복원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 증대

□ 마한 역사문화권의 중요성 : 대‘한’민국 국호의 근원이자 정체성 보완

- 대한민국은 ‘한’에서 명칭이 유래되었으며, 마한은 한의 출발지이자 중심
-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의 명칭에서 보이듯이 국가의 위기에서
큰 나라를 만들고 통합의 의미를 나타내는 정체성 표현

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개발의 필요성

□ 6개 역사문화권 중 마한역사문화권 개발 미비

- 신라는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3조 4천억, 백제는 고도보존육성사업에 1조 4천억,
가야는 국정과제 선정 후 1조 4천억 원의 비용 투자 예정
- 상대적으로 마한 역사문화권에서 그 중요성에 비하여 투자가 매우 없음
- 예산의 나눠 먹기식이 아닌 균형발전론에 입각하여 마한을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문화의 조사와 연구, 보존과 정비를 선도할 지역 박물관 및 역사문화연구원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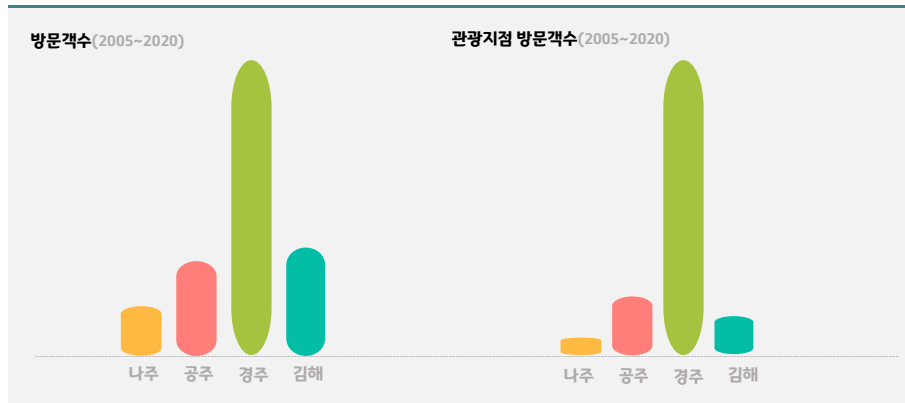
- 가야와 신라, 백제는 중요한 유적에 시군 박물관이 건립
- 현재 마한 역사문화권은 국립박물관 외에 각 지역 마한 관련 박물관은 전무함
- 마한 역사문화권 개발은 각 지역 박물관 및 연구원의 건립이 필수적임
- 지역문화 연구를 선도할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필요

문화권	투자 비용
신라	3조 4천억
백제	1조 4천억
가야	1조 4천억

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개발의 필요성

□ 역사문화권 개발 미비는 활성화 부족과 관광규모의 축소로 이어짐

-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나주(마한), 공주(백제), 경주(신라), 김해(가야)의 연간 평균 방문객 수를 살펴보면 각각 나주 약 180만명, 공주 330만명, 경주 1,250만명, 김해 380만 명으로 1:1.8:7:2.1의 차이를 보이며, 그 중 각각의 역사문화권을 대표하는 관광지점의 평균 방문객 수는 나주 24만명(2개소), 공주 108만명(5개소), 경주 758만명(22개소), 김해 64만명(5개소)으로 1:4. 5:31.6:2.7으로 더욱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단순한 지역 개발의 차이에서 나아가 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경제적 불균형 형태가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됨



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개발의 필요성

□ 마한 역사문화권은 역사문화권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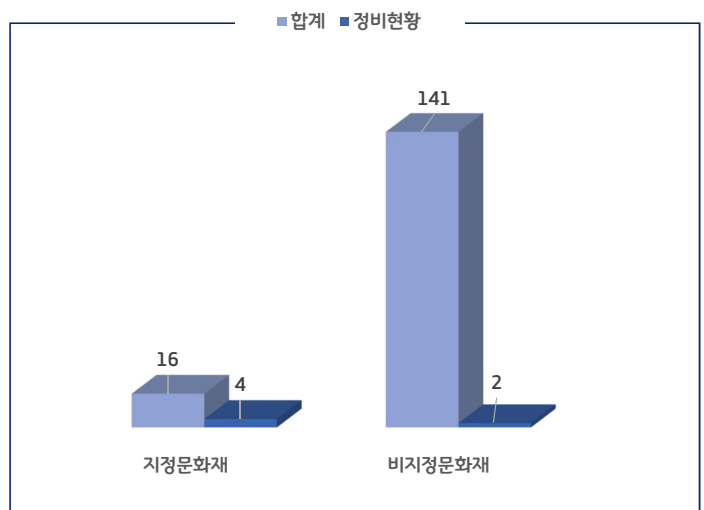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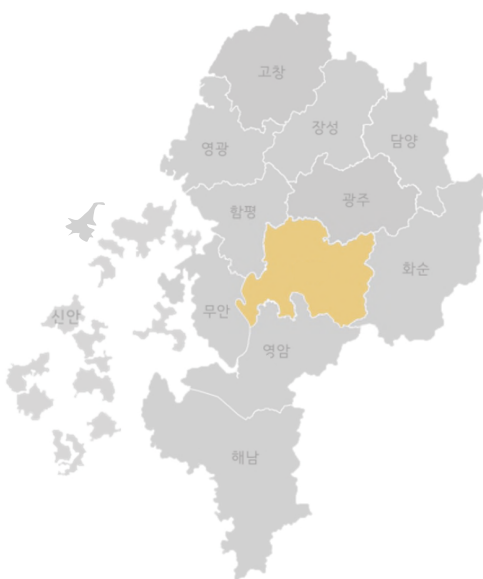
- 마한문화의 특징인 분구묘와 웅관묘가 가장 융성한 곳은 영암과 나주
- 크게 삼포천 일대와 영산강 본류인 다시면 일대에서 번영
- 이들 지역의 조사와 연구, 복원과 정비를 통해서 마한 역사문화권의 실체를 구명할 수 있음
- 마한 문화의 복원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효율성, 장기·중기·단기적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
- **국유 발굴은 비지정문화재를 지원할 수 있는 역사문화권 특별법의 선도 사업**
- 삼포천 일대와 다시면 일대의 개발을 통해 각 지역과 연계 방안 모색
- 사적의 ⅓이 위치할 정도로 개발을 하면 일본의 요시노가리 못지않는 유적으로 위상 정립

Ⅱ.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현황

Ⅰ.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현황

1. 마한문화권 지정/비지정 문화재 및 정비현황

1) 나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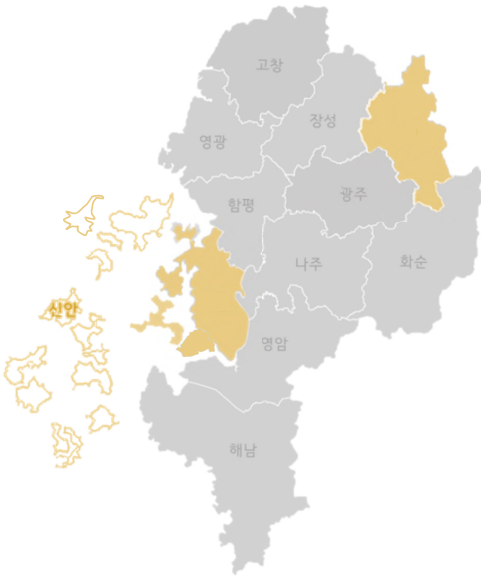


비지정문화재 지정 및 정비 시급

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현황

1. 마한문화권 지정/비지정 문화재 및 정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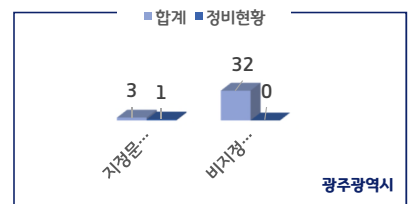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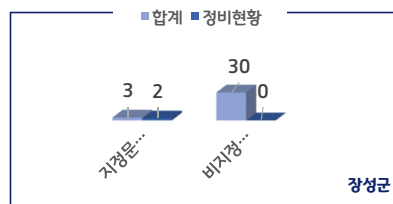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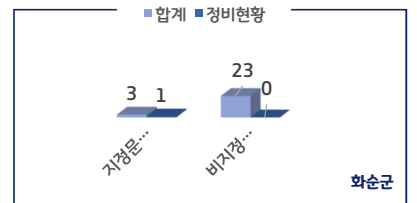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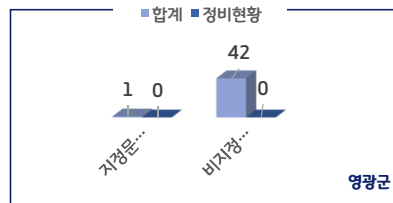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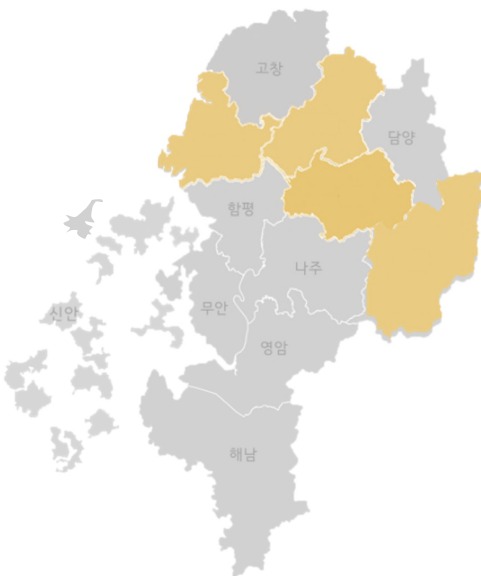
2) 담양군, 무안군, 목포시, 신안군



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현황

1. 마한문화권 지정/비지정 문화재 및 정비현황

3) 영광군, 장성군, 화순군, 광주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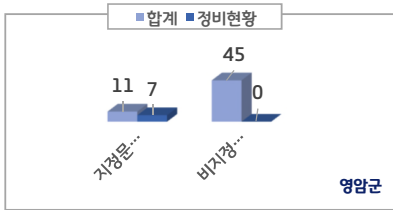
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현황

1. 마한문화권 지정/비지정 문화재 및 정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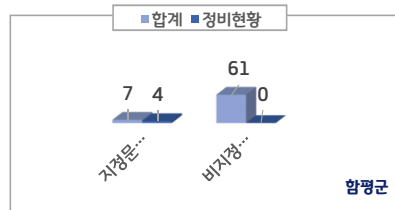
4) 영암군, 함평군, 해남군



와우리 용관묘, 내동리 초분굴 고분군,
내동리 용관묘, 만수리 고분군 등



마산리 고분군, 함평천 일대 등



군곡리 패총, 옥녀봉 토성,
신금 유적, 일평리 성지(죽궁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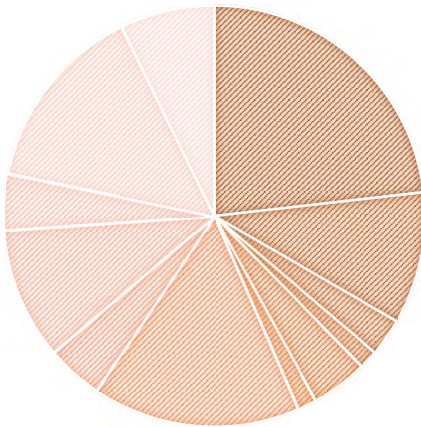


영암 · 함평 · 해남 지역 등 일부 지역 주목되며, 집중 투자할 가치가 있음

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현황

지역별 지정문화재 현황

■ 나주시 ■ 담양군 ■ 무안군 ■ 목포시 ■ 신안군 ■ 영광군
■ 영암군 ■ 장성군 ■ 함평군 ■ 화순군 ■ 해남군 ■ 광주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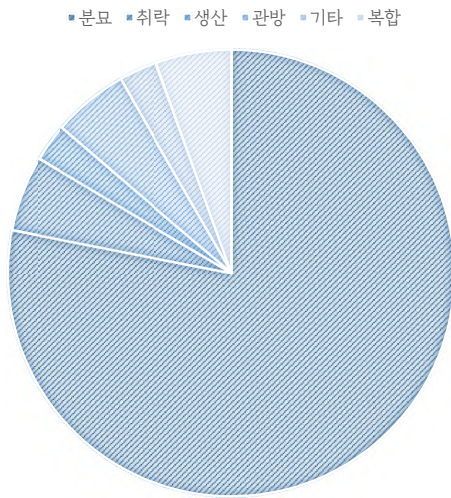


지역	국가지정			지방지정			계
	국보	보물	사적	기념물	문화재 자료	향토 문화유산	
나주시	1	1	3	3	3	5	16
담양군				2	4	1	7
무안군				1	1		2
목포시						1	1
신안군				2		1	3
영광군				1			1
영암군	1			6	4		11
장성군				-	3		3
함평군				5	2		7
화순군	1			1	1		3
해남군			1	5	3	1	10
광주광역시			1	2	2		5
합계	3	1	5	28	23	9	69

나주>영암>해남 순으로 분포

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현황

유형별 지정문화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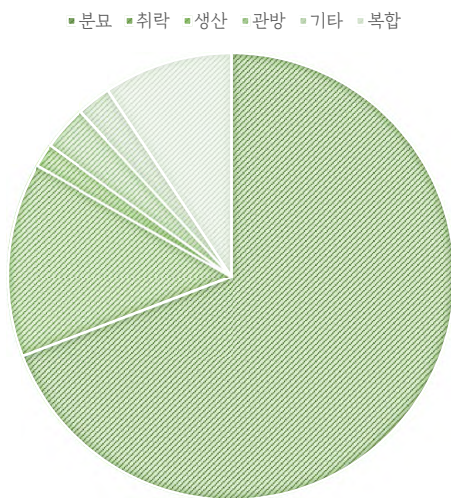
지역	분묘	취락	생산	관방	기타	복합	합계
나주시	12(2)		1	2	1		16
담양군	6	(1)				1	7
무안군	2						2
목포시	1						1
신안군	3						3
영광군	1						1
영암군	9		1		1		11
장성군	2			1			3
함평군	7						7
화순군	3(1)						3
해남군	8	(1)		1		1	10
광주광역시	3	(2)				2	5
합계	57	(4)	2	4	2	4	69

분묘>관방=복합(취락포함) 순으로 분포

→ 생활유적에 관한 조사와 결과에 따른 문화재 지정 및 복원·활용 사업의 확대 필요

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현황

유형별 비지정문화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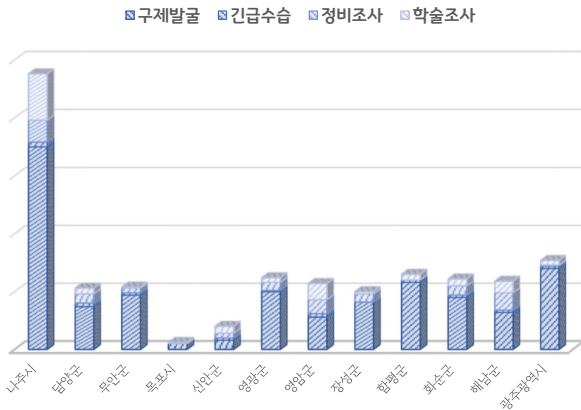


지역	분묘	취락	생산	관방	기타	복합	합계
나주시	118	12	7	1		3	141
담양군	14	6		1	1	2	24
무안군	32	4		1		2	39
목포시							0
신안군	17			5	10		32
영광군	35	3				4	42
영암군	42	2		1			45
장성군	14	7		5		4	30
함평군	41	10	1	1		8	61
화순군	12	8		1		2	23
해남군	15	1		1	2	2	21
광주광역시	24	21	1			22	68
합계	364	74	9	17	13	49	526

분묘>취락>복합 순으로 분포

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현황

발굴조사 현황 분석(2005~2021.08)



15년간 유적 조사 현황

전체 802건 중 619건(약 77%) 구제 발굴과 긴급수습조사, 183건(약 23%) 복원·정비나 학술연구

나주시의 조사 건수가 가장 높음

나주혁신도시 개발에 의한 구제 발굴이 증가, 정비 및 학술 조사·연구도 다수 진행

나주시 외에 정비 및 학술 조사·연구 비중이 높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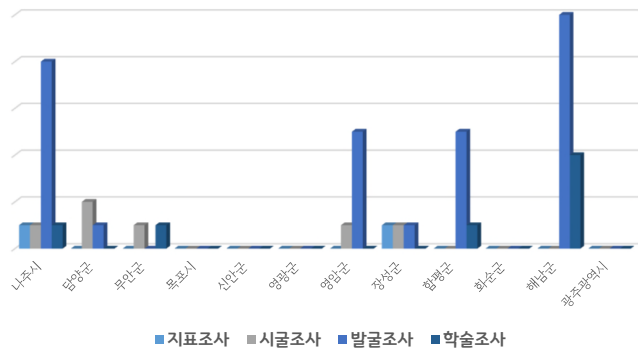
영암군, 해남군
→ 마한 유적 밀집 분포지역 조사가 진행됨

마한역사문화권의 유적 보존을 위해서는 미조사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정비·학술 조사의 확대, 구제·수습 발굴 후 보존 대책 필요

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현황

1. 발굴조사 현황

마한유적 조사현황분석(12개 시군, 최근 4년)



- 최근 4년간 진행된 조사 총 45건 중 지표조사 2건, 시굴조사 6건, 발굴조사 30건, 학술 조사 7건
- 최근 4년간 매장문화재에 관한 조사·연구에 집중
- 해남군은 마한 유적에 관한 조사·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
- 함평군은 사적 승격을 위한 학술조사 실시
- 광주광역시시는 최근 4년간 진행된 마한 유적 조사 없음
- 마한역사문화권 내 마한 유적에 관한 보존 범위와 현황 등에 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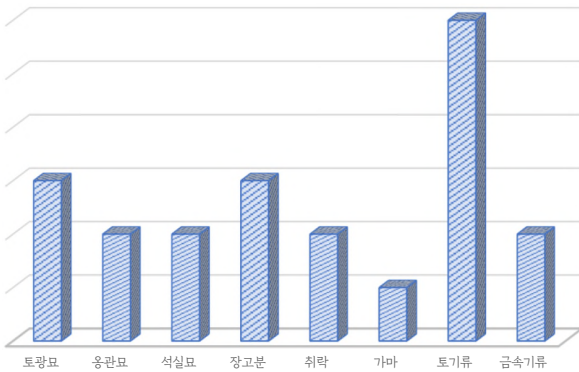
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현황 2. 연구 현황

연구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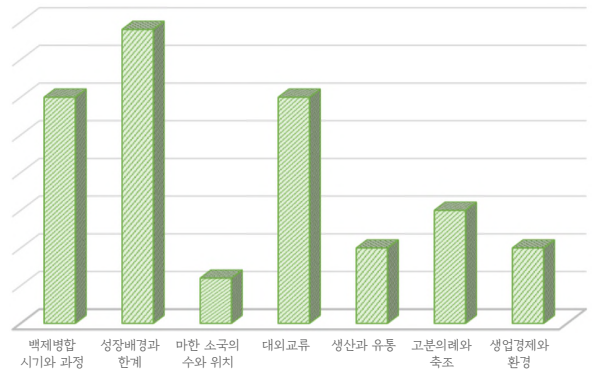
1) 국내 자료 (연구현황 : 마한역사권 관련 논문 350 여편)

- 유구/유물 중심 분류 : 분묘, 취락, 생산, 출토유물 등
 - 토광묘(분구묘), 옹관묘, 석실묘, 장고분, 취락, 가마, 토기류, 금속기류 등
- 주제별 분류 : 백제 병합 시기와 과정, 성장배경과 한계, 마한 소국의 수와 위치, 대외교류, 생산과 유통, 고분의례와 축조, 생업경제와 환경 등

■ 유구/유물 중심분류(210편)



■ 주제별분류(140편)



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현황 2. 연구 현황

연구 현황 분석

2) 국외 자료 (연구현황 : 100여편 이상)

- 국외 논문 자료 : 일본 중심
- 주제 : 영산강유역 마한과 관련된 장고분, 석실묘, 분주토기, 스에키 등을 중심으로 대외교류 관계 및 교류 주체인 마한·백제계 도왜인의 정착 과정 연구



II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현황

I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현황 1. 마한역사문화권의 정비 현황

1) 유형별 마한 관련 역사문화 유적 정비 현황 분석

유형별 지정 현황

구분			계	유적분류				
				생활	분묘	생산	관방	복합
마한유적			606	94	428	14	19	50
지정 현황	국가지정(사적)		5 (1.1%)	1	2	1		1
	시·도 지정	기념물	28 (4.4%)		24		2	1
		문화재 자료	23 (3.7%)		21		1	1
	시·군지정 (향토문화유산)		8 (1.4%)		7		1	
	소계		64 (10.6%)	1	54	1	4	3
	비지정		542 (89.4%)	93	374	13	15	47

현재 국가 및 시·도·군 지정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은 모두 64개소(10.6%)

이 중 분묘유적이 54개소(84.3%) 정도로 가장 많이 차지

I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현황 1. 마한역사문화권의 정비 현황

1) 유형별 마한 관련 역사문화 유적 정비 현황 분석

유형별 정비 현황 분석

① 생활유적

구분		계	발굴현황			정비현황		
			미발굴	시굴	발굴	정비	기초정비	미정비
생활유적		94	10		84			94
지정 현황	국가지정(사적)	1			1			1
	시·도 지정	기념물	0					
		문화재 자료	0					
	시·군지정 (향토문화유산)	0						
	비지정	93	10		83			93

② 분묘유적

구분		계	발굴현황			정비현황		
			미발굴	시굴	발굴	정비	기초정비	미정비
분묘유적		428	285	11	132	2	28	399
지정 현황	국가지정(사적)	2			2		2	
	시·도 지정	기념물	24	6	18		16	7
		문화재 자료	21	10	9	1	8	12
	시·군지정 (향토문화유산)	7	2		5		1	7
	소계	54 (12.6%)	18	2	34	1	27	26
비지정		374	267	9	98	1		373

I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현황 1. 마한역사문화권의 정비 현황

1) 유형별 마한 관련 역사문화 유적 정비 현황 분석

유형별 정비 현황 분석

③ 복합유적



- 복합유적은 광주 신창동유적(사적 제375호), 담양 응용리 및 태목리유적(전라남도 기념물 제251호), 광주 임암동·원산동 선사주거지 및 석곽묘(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8호) 등이 지정되어 관리
- 분묘유적과 달리 현재 자연녹지로 유지되고 있으며, 모두 사유지와 혼재되어 있는 만큼 지속적인 훼손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
- 신창동 유적은 민가와 소규모 공장을 비롯하여 호남고속도로 등과 혼재되어 있어 지속적이 훼손 가능성 우려와 효율적인 관리의 문제가 시급해 해결되어야 함
- 담양 응용리 및 태목리유적은 영산강 상류의 최대 복합유적에 해당하고, 영산강유역에서 구제발굴조사 후 지정문화재로 관리되는 유일한 곳이라는 점에서 향후 마한 역사문화 유적의 개발에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음
-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용리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 등록을 위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이 유적에 대한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음

I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현황 1. 마한역사문화권의 정비 현황

2) 지역별 마한 관련 역사문화 유적 정비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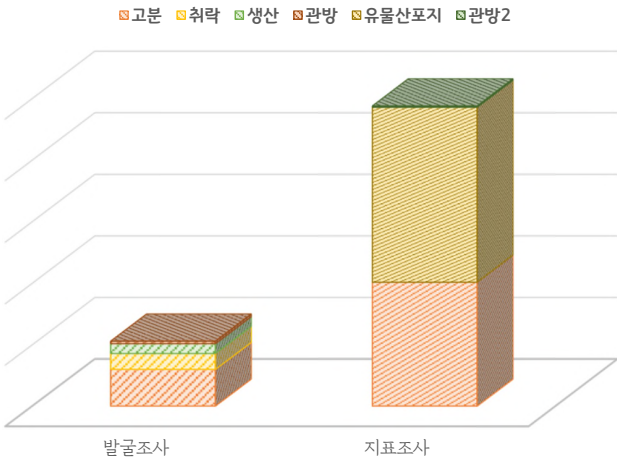
지역별 지정 현황

구분	계	지정 현황					
		국가지정 (사적)	시·도지정		시·군지정 (향토 문화유산)	소계	비지정
			기념물	문화재자료			
마한유적	606	5 (1.1%)	28 (4.4%)	23 (3.7%)	8 (1.4%)	64 (10.6%)	542 (89.4%)
나주시	151 (24.9%)	3	3	3	4	13	138
목포시	1 (0.4%)				1	1	
담양군	31 (5.1%)		2	4	1	7	24
무안군	42 (6.9%)		1	1		2	40
신안군	36 (5.9%)		2		1	3	33
영광군	46 (7.6%)		1			1	45
영암군	56 (9.2%)		6	4		10	46
장성군	31 (5.1%)			3		3	28
함평군	70 (11.5%)		5	2		7	63
해남군	32 (5.3%)	1	5	3	1	10	22
화순군	25 (4.1%)		1	1		2	23
광주광역시	85 (14.0%)	1	2	2		5	80

- 전남·광주지역에서 영산강유역의 마한 관련 역사문화유적은 606개소
- 12개 시·군 지역에서 나주시가 가장 많은 151개소(24.9%)
- 또한 사적부터 향토문화유산까지 고르게 지정·관리되고 있음
- 광주광역시 85개소(14.0%)로 나주시 다음으로 많은 마한 역사문화유적이 확인
- 1/2가량 적게 확인된 담양군·영암군·해남군보다 지정문화재 수가 현저히 적게 확인되는데, 이는 도심개발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광역시의 현실이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됨

I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현황 2. 마한역사문화유적 종합정비계획

1) 마한 역사문화 유형별 복원 · 정비 방향



발굴조사 유적 중 개발행위에 의한 조사의 경우 유적은 대부분 멸실되었기 때문에 해당 지점에 유적안내판을 세워 유적의 위치와 성격을 알릴 필요가 있음

I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현황 2. 마한역사문화유적 종합정비계획

1) 마한 역사문화 유형별 복원 · 정비 방향

(1) 분묘유적

안내판

- 지정문화재의 경우 기초정비는 이루어져 있지만 유적안내판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
- 안내판 디자인은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할 필요

편의시설

- 유적 진입도로를 정비하고 유적의 규모에 따른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학술발굴

미조사 복원 유적에 대한 학술발굴 필요

- 나주 반남고분군의 경우 대다수가 일제강점기에 발굴되어 자료가 빈약
- 이후 1980~90년대에 기초조사만 이루어진 후 복원
- 재발굴이 필요한 논리 제시
- 일제강점기 상황 이해 및 정확한 구조와 성격 파악

종합보고서

주요 고분군별 추가 조사와 종합 보고서 발간

- 각 고분군의 이해를 위해서는 추가 발굴과 함께 종합 보고서 발간 필요
- 향후 대안리고분군과 신촌리고분군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음
- 대안리고분군과 신촌리고분군의 경우 대다수가 일제강점기에 발굴되어 자료가 부족함
- 영동리고분군은 2·7·8호분에 대한 추가 발굴이 필요하고, 기존 발굴조사 성과를 포함하여 종합 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음
- 동곡리고분군은 간존 4기 외 3기에 대한 학술발굴조사가 필요하고 주변에 대한 시굴조사 등을 통하여 유실된 고분들의 흔적을 찾고 횡산고분의 발굴조사 성과를 포함하여 종합 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음
- 장동리고분군은 조사 1기 외 나머지 2기의 경우 경작과 민묘 조성 등으로 지속적인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어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종합 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음

II.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현황 2. 마한역사문화유적 종합정비계획

1) 마한 역사문화 유형별 복원 · 정비 방향

(2) 취락유적

- 취락유적은 대부분 개발행위에 앞서 이루어진 발굴조사로 조사 완료 후 모두 멸실됨
- 이 지역 마한문화를 대표하는 반남고분군과 복암리고분군의 축조 세력에 대한 취락유적(국읍)은 확인되지 않음
- 취락유적은 특성상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지표조사를 통해 추정되어 왔음
- 기존 지표조사는 육안 관찰을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새로운 방법의 도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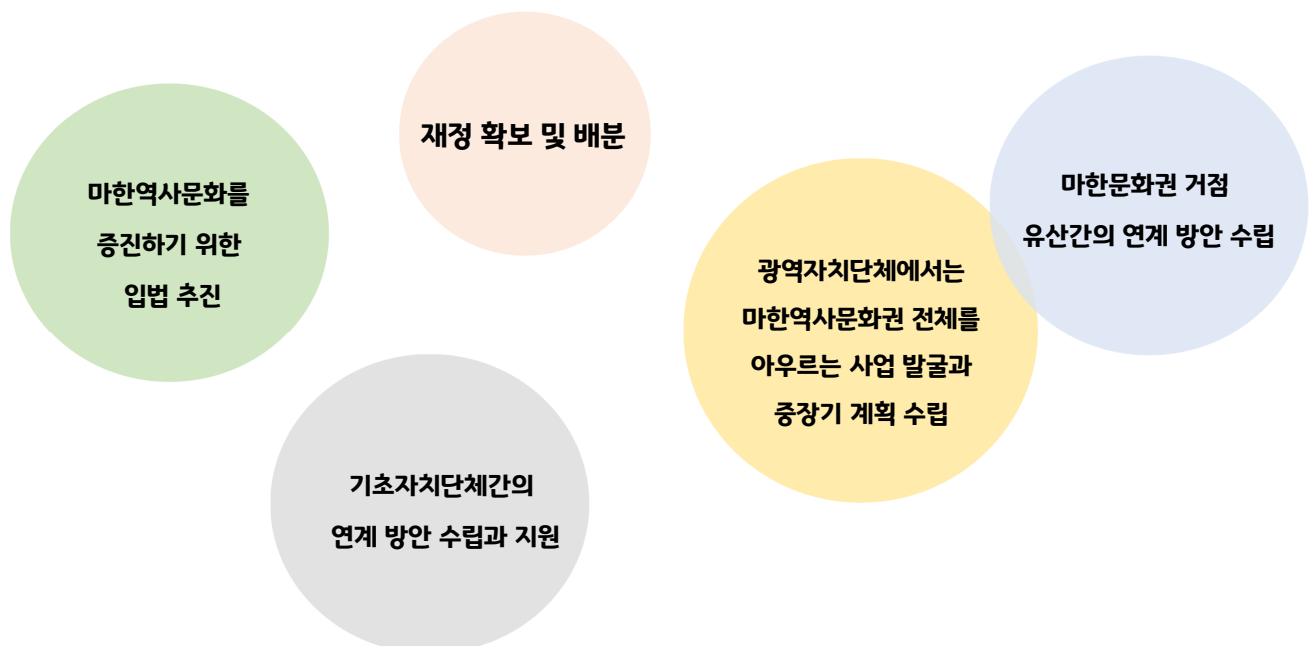
-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1918년 지적원도와 1927년 전후에 작성된 지형원도를 기초하여 현재의 KLIS와 1/5,000 NGIS지형도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표와 지형의 변형을 추정, 유적의 유존 가능지역 추정
- GIS 분석, 고지형 분석을 토대로 한 유적 가능지역 예측, 확인 필요
- 예측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전면적인 표본/시굴조사를 진행하여 유적의 분포 범위를 확인
- 확인된 분포 범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전면적인 학술발굴 진행
- 개발행위로 인해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특정 부지(국읍테마파크 혹은 마한역사공원)를 선정하여 유구를 이전복원

IV.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활성화 방안

V.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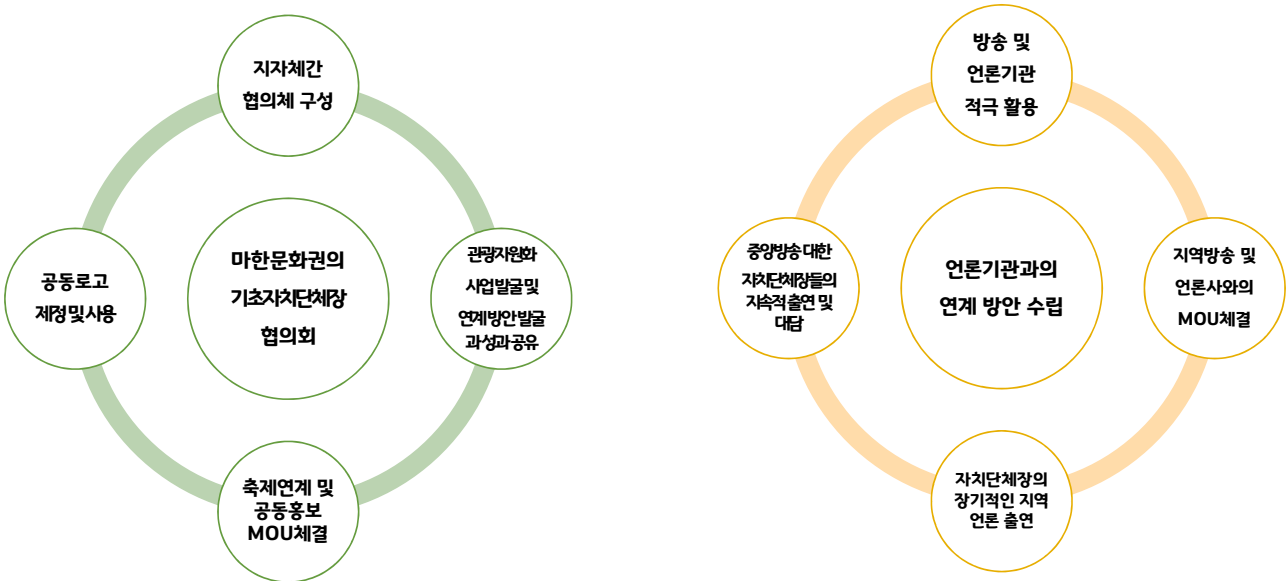
1) 지역 간 연계 · 협력 추진체계 구축

(1) 마한역사문화권 내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연계 방안 수립



V.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활성화 방안

- 1) 지역 간 연계 · 협력 추진체계 구축
- (2) 마한문화권의 기초자치단체장 협의체 구성



V.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활성화 방안

- 2) 홍보 및 관광자원화 관련 연계 · 협력 방안



- 고구려·백제·신라·탐라 등 각 권역별 문화권간의 홍보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연계·협력은 관련 사업의 홍보 요청을 위한 공문서 교환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타 문화권에서의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마한문화권 소속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행사를 지양하고, 마한역사문화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계획 하에 정비·복원·활용·홍보를 추진하여 마한역사문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극대화해야 함

V.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활성화 방안

3) 마한역사문화 조사·연구관련 연계·협력방안



조사 현황	◦ 선행 마한 관련 유산 조사 현황 파악 - 지역별 마한 관련 문화유산 선행 조사 현황 파악 - 수계 및 지천별 마한 관련 유산 조사 현황
마한사 관련 연구 현황	◦ 선행 마한 관련 유산 및 관련 연구 현황 파악 - 생활, 정치, 경제, 국방, 매장, 경작, 생산, 예술 등의 분야별 선행 연구 현황 파악
연계·협력 방안 도출	◦ 향후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주제 도출 - 자치단체별로 특징(상징성)있는 마한문화유산 발굴 대상 및 조사·연구 과제 선정과 실행
지역단위별 강점유산 선정	◦ 지역 단위별 강점 유산의 선정과 대상 유산 선정 - 상징성과 경쟁력 있는 유산 유산이 분포한 복수의 자치단체를 묶은 권역을 설정
주제 도출	◦ 도출된 조사와 연구의 연계·협력 방안 도출 - 마한역사문화권의 조사·연구 현황 종합과 개선 및 향후 방향과 목표 설정, 공동정책 개발과 계획 수립, 총괄, 실행, 홍보, 활용, 마한문화유산 후보 선정 및 등재추진을 위한 『(가)마한역사문화재단』공동설립운영

V.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활성화 방안

4) 마한역사문화 방향성

1) 타 문화권 사례

- ☐ 백제와 신라는 기존 사업을 통합할 기구를 만들어 추진
- ☐ 가야는 시도 단체장의 노력과 국정 과제 선정의 필요성 부각 (정치적 논리)
- ☐ 세계유산 등재와 밀접한 관련

2) 마한 역사문화권 방향

- ☐ 마한 역사문화권에 속한 지역의 통합 추진 필요
- ☐ 다른 문화권과 차별화된 위상과 필요성 부각
- ☐ 지역 균형과 개발의 정치적 논리 접근 필요

V.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활성화 방안

- 지역 균형발전론에 입각한 마한 역사문화권 집중 투자 요망
- 마한 역사문화권 실체를 구명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반영된 마한문화권이 원래의 정책 방향으로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V.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활성화 방안

5) 마한역사문화 홍보 방안



V.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활성화 방안

브랜드 이미지 제고(안)

① 마한역사문화권을 테마로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 제작(OSMU)



(위)강원도 강릉 - '도깨비' 촬영지
(아래)충남 논산- '미스터션사인'촬영지

김선호 '갯차' 촬영지로 뜬 포항 갯마을, 시티투어버스도 생겼다

입력 2021.11.01. 오전 5:00 | 수정 2021.11.01. 오전 5:01

백종현 기자 >

2,033 334

🔍 🔊 📄 📧

백종현의 여기 어디?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사방기념공원의 옥은봉 언덕. 이곳에 '갯마을 차차차' 속 두식(김선호)의 고깃배가 놓여 있다. 포항 앞바다를 내다보는 전망까지 갖춰 드라마 촬영 후 기념사진 명소가 됐다. 주말 하루 1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백종현 기자

V.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활성화 방안

브랜드 이미지 제고(안)

① 마한역사문화권을 테마로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 제작(OSMU)



경기 GO HO9

"본 콘텐츠는 경기도/경기관광공사의 브랜드 활동으로 HO9 작가가 전하는 경기지역 대표 음식입니다."
요리GO 주원공 한별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스토리, 드라마 | 전체연령가

관심행동 찜해보기 작가의 다른 작품 100

이미지	제목	별점	등록일
	6화 경기도 막걸리	★★★★★ 9.92	2021.10.27
	5화 여주 천서리막국수	★★★★★ 9.94	2021.10.20
	4화 광주 근지암소머리국밥	★★★★★ 9.94	2021.10.13
	3화 용인 백암순대	★★★★★ 9.92	2021.10.06
	2화 이천 쌀밥	★★★★★ 9.89	2021.09.29
	1화 수원 왕갈비	★★★★★ 9.83	2021.09.22

사례1. 경기관광공사 - '경기 GO'



달려라!메리 마인드C

2015년 10월 강원도, 전국체육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본 콘텐츠는 마인드C 작가가 전하는 전국체육대회 이야기로서 강원도의 브랜드 활동입니다.
스토리, 일상 | 전체연령가

관심행동 찜해보기 작가의 다른 작품 16,921

이미지	제목	별점	등록일
	10화 월유메리미	★★★★★ 9.95	2015.10.28
	9화 달려라 메리	★★★★★ 9.97	2015.10.21
	8화 전국체전 시작이다	★★★★★ 9.97	2015.10.14
	7화 좋아 결심했어!	★★★★★ 9.97	2015.10.07
	6화 동물이 좋아	★★★★★ 9.96	2015.09.30
	5화 이제 우리 춘천 기자	★★★★★ 9.97	2015.09.23

사례2. 강원도 - '달려라!메리'

V.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활성화 방안

마한역사문화 홍보 마케팅

브랜드 이미지 제고(안)

②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통한 접근

예시) 시설과 접근성이 좋은 자동차 캠핑장 with 반남고분군

이색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with 복암리고분군

음식의 맛, 편안함, 역사교육적인 가치까지 갖춘 가족여행 with 나주시

◦ 캠핑(차박), 맛집여행, 나홀로여행, 가족여행, 풍경맛집 등 현대 여행 트렌드를 먼저 확보

→ 자연스럽게 마한역사문화의 가치를 전달

V.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활성화 방안

마한역사문화 홍보 마케팅

대중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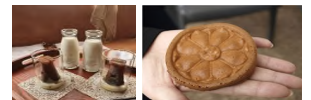
즐길거리



볼거리



살거리



경주첨상대궐떡 아이스크림
공주와당빵
함안불빵

전남지역 마한 연구의 방향성 모색: 해상교역을 중심으로¹⁾

허진아

(전남대 문화인류고고학과)

I. 머리말

구슬은 마한의 대표적인 고분 부장품으로, 원삼국 초기부터 엘리트 네트워크를 상징하는 위신재로 사용되어 왔다(Heo 2020).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홍옥수(카넬리안 구슬)와 유리구슬은 기원전 108년 한군현 설치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된 동아시아 해상실크로드(항시적 바닷길)를 통해 수입된 원거리 교역품이다(권오영 2014, 2017; 박준영 2016b; 허진아 2018).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기원전 1세기부터는 마한 엘리트들이 동남아시아 본토 및 수많은 섬들을 비롯해 중국 남부와 동부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광역교류망에 참여하였음을 시사한다(허진아 2019).

중요한 점은, 구슬교역을 매개로 이루어진 해상 교류네트워크가 동아시아 지역 사회들 간 상호작용을 높이고 각 지역공동체들의 사회정치적 발전을 이끌었다는 사실이다(Bellina et al. 2014; Carter 2015; Heo 2020; Stark et al. 2006). 해상교역은 원거리 지역으로부터 물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기술·정보를 받아들이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역 간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교역권 통제에 따른 권력집중화를 비롯해 도시시스템의 출현이나 이데올로기의 공유 등 정치·경제·사회 다방면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며 동아시아 지역사회에 초기국가 및 정치체 출현을 가속화시킨다. 원삼국 초기부터 동아시아 구슬 해상교역에 참여해 온 마한이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강력한 초기국가 단계 사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배경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필자의 전고(허진아 2018, 2019a, 2019b, 2020, 2021)를 수정·편집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필자는 이와 같이 동아시아 구슬 해상교역이 고대국가 형성과 발전에 끼친 영향에 주목하며 마한사회의 성장을 오랜 기간 동아시아 해상교류망에 참여해왔던 다양한 지역집단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역동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것을 제안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마한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는 동아시아 구슬 해상교역과 광역교류망의 성립이 전남지역 마한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 같은 사회변동이 영산강 마한사회 발전 모델 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Ⅱ. 동아시아 구슬 해상교역과 광역교류망의 성립

해상실크로드는 중국 남동부 광저우 지역에서 출발하여 동남아시아를 거쳐 인도 등 남아시아를 경유하여 아프리카와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항로를 일컫는다(Fuxi 2009). 『漢書』에 따르면, 전한의 무제(武帝)가 톤킨만에서 시작, 말레이 반도를 통과하여 인도와 스리랑카에 이르는 해상실크로드를 처음으로 개시하였다(Xiong 2014). 사절단, 조공단 등 한왕조의 관리들뿐만 아니라 개인 여행자들 역시 이 해상교역로를 통해 왕래하였다.



도면 1. 『漢書』에 기록된 한나라 사절단의 구슬 해상교역 경로(말레이시아는 귀항 경로에 포함, Xiong 2014)

이를 가능케 한 것은 기원전 111년경에 단행된 중국 영남지역(현재의 광둥성 광시·장족 자치구·하이난 성·후난성·강서성 등)과 베트남 북부 및 중부지역에 위치하였던 남월국(Nanyue Kingdom, 207-111 BCE)에 대한 대규모 정벌과 군현의 설치이다. 한왕조는 중국 남부 영남지역을 9개 군현으로 분리하여 관할하였는데, 특히 합포군(合浦, Hepu; 중국 남부 장족 자치구 北海市)에는 국제 교역항과 거점 도시를 설치하여 세계 여러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산들을 수집, 관리, 배분토록 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합포 항구에서 출발한 사절단 및 여행자들이 한나라에서 나는 비단과 금을 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의 구슬로 교환하였다고 한다. 합포군의 한나라 무덤에서 출토된 가넷·아게이트·카넬리안·아메시스 구슬이나 사자 모양 호박 장신구, 로마 유리그릇 등 서역 관련 유물들은 한왕조가 인도·스리랑카·이란 고원·아프가니스탄 등 남아시아를 통해 로마까지 이어지는 교역 네트워크를 운영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도면 2. 합포군 한나라 무덤 유적 출토 유물(Xiong 2015)

이와 같이, 기원전 2-1세기대 동서양을 연결하는 해상실크로드가 한무제에 의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남아시아·동남아시아·중국·한반도·일본의 연안은 일종의 광역교류망을 형성하게 된다. 서쪽으로는 톤킨만과 벵갈만을 지나 인도 남동부에 이르게 되고, 동쪽으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지나 한반도의 서해안과 남해안을 거쳐 일본으로 연결되는 해상교역망이 완성된다. 앞서 살펴봤듯이, 서쪽 교역로의 성격은 『漢書』 기록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한나라의 금과 실크를 인도의 구슬·유리·진주 등 장신구나 보석으로 바꿔오는 것이었다(Xiong 2014). 동쪽 교역로를 통해서도 한반도와 일본으로 한나라 동경과 수입산 구슬이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만(권오영 2014, 2017; 박준영 2016a, b; 허진아 2018; Chen et al. 2019; Tamura and Oga 2014; Zhangsun et al. 2017), 그 구체적 경로나 성

격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알려진 내용이 없다.

	
캄보디아 북부 Prohear(Carter 2013)	김포 운양동

도면 3. 칼륨(Potash) 유리구슬

	
베트남 남부 Oc Eo	완주 상운리

도면 4. 소다(Soda) 유리구슬

마한·백제로의 구슬 유입과 확산은 이와 같은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전개된 해상교역의 연장선상에 있다. 기원전 3세기말-2세기초 한반도 서해안권역에 중국의 남-바륨 유리 및 환형 유리제품(璧; Bi discs)이 유입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왕조 성립 이후에 남-바륨과 칼륨 유리 생산의 중심지가 중국 남부(광시성·광둥성)로 이동하고 남중국해 해상교역망이 활성화되는 정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기원전후를 기점으로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교류가 급증하면서 부남의 옥에오와 카오삼케오 국제교역항을 중심으로 하는 소다 유리구슬 교역이 성행하게 된다(허진아 2019b). 이에 따라 기원후 1세기대 칼륨에서 소다 유리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고(Bellina 2014; Carter 2015) 이후 동남아시아의 국제 교역도시를 비롯해 한나라 해상실크로드에서 교역되는 주요 물품은 인도-태평양 유리구슬로 불리는 고알루미나계 소다 유리구슬로 바뀌게 된다. 이 같은 동남아시아 유리구슬 유통 변화(칼륨->소다)에 따라, 기원후 3세기부터는 인도-태평양/고알루미나계 소다 유리구슬이 한반도에 다량으로 유입되며 기원후 6세기까지 고분 부장품으로 크게 성행한다. 기원후 2세기대까지는 칼륨 구슬이 해안/평야지역에 집중되다가, 소다 유리가 대량 유통되는 3세기대로 넘어오면서 충청 내륙지역으로까지 구슬 소비가 확대되는 것이다(허진아 2019).

기원전 109년까지는 (1) 산동반도-요동반도-서·남해 연안로를 통해 주민·장인의 이주나 상인의 왕래가 이루어지며 해상교류가 활성화된다. 다만, 이 시기 해상교역은 광역의 범위에서 상시적으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수준이 아닌 지역 대 지역, 일회적·단발적 사건(event)의 성격을 띠었을 것이다. 한군현이 설치되는 2 단계에는 해상실크로드(기존 루트와 더불어 합포군-남중국해-동중국해-산동반도-서해안-남해안-일본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루트)가 다양한 문화 유입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기원후 1세기대에는 한나라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교역을 주도한 부남(Funan; 扶南)의 성장을 계기로 동아시아 교류의 범위가 남아시아로까지 확장된다. 이러한 지역 간 교류 증가가 당시 해상교역 네트워크에 참여하였던 마한사회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며 사회정치적 발전 즉 정치체 출현을 가속화시켰을 것이다(허진아 2019a:66-7).

Ⅲ. 마한의 사회정치적 발전과 지역 다양성

1. 해상교류와 사회변동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기원전 500년경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구슬 해상교역은 기원전 3-2세기대 진한시기에 이르러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광역 교류네트워크로 발전한다. 이 장에서는 해상을 통한 지역 간 교류가 전남의 마한 지역집단의 정치·경제·사회 다방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다.

1) 정치권력의 집중화

해상교역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교역과 교역품에 대한 통제권 및 재분배 권한을 가진 엘리트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앞서 살펴봤듯이, 남중국해 및 환황해 네트워크의 주된 교역품이 지배계층을 위한 고가의 사치품 즉 구슬·장신구였다는 점은 동아시아의 해상교류가 지역정치체 및 국가 단계 사회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말레이반도 철기시대 엘리트들은 카오 샘 케오의 장인집단들을 관리하며 구슬 생산과 교환을 통제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간 것으로 보인다(Bellina 2003, 2007). 또한 메콩 델타지역 부남의 발전과정에 대한 홀의 연구(Hall 1982:86)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엘리트들은 상인들에게 풍부한 식량과 안전한 항구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제교역 상인들을 옥에오 같은 교역도시로 끌어들이고 농경지 관리나 물품거래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세계에 노출되며 얻게 되는 정보까지 교역 활동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통치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슬과 같은 위세품의 교환은 특정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창출하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Kenoyer 2000). 동일 위세품을 사용하는 주변 집단 리더들과의 연결 즉 엘리트 네트워크의 구성원이라는 상징성을 통해 집단의 리더는 공동체 내부로부터 권위와 지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다시 말해, 권위 있는 재화를 사용하여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동맹 네트워크를 극대화함으로써 권력의 확대와 통제의 집중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Blanton et al. 1996). 홍옥수(carnelian), 석류석(garnet), 마노(agate) 등으로 만든 남아시아산 고품질 구슬과 장신구는 메콩 델타지역 엘리트들의 연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Carter 2015:751). 이러한 엘리트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지역 간 상호작용이 궁극적으로 기원후 1-2세기대 부남·참파 등 동남아시아 해상국가 출현을 이끌어 낸 중대한 계기가 된 것이다(Junker 2004).

합포 무덤은 한나라 해상실크로드를 기반으로 성장하였던 중국 남부지역 지배세력의 면모를 보여준다. 한나라의 국제교역항이었던 합포항 인근에 전한 말에서 후한 말(30 BCE-220 CE)까지 약 10,000여 기의 무덤들이 조영되었다(Xiong 2014). 갯도 무덤·목곽묘·전축분 등 전형적인 한나라 양식과 지역 양식의 무덤들이 함께 발견되었고 한나라 전통의 청동기와 옥기를 비롯하여 유리·석류석·호박·마노·금제 다각형 구슬·진주·페르시아 도자와 청동 심벌 같은 이국적인 수입품들이 다량 출토되었다. 기원전 2세기 말부터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유통되었던 물품들 대다수가 무덤부장품으로 사용된 것이다. 한 번 출항에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

는 장거리 교역이었던 만큼 수입된 물품들은 재지생산품들과는 비교가 어려울 만큼 고가였을 것이고 이를 무덤부장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또한 합포군의 통치자나 합포항과 교역로를 관리하였던 한나라 관료 또는 중계교역을 통해 경제적 부를 쌓은 상인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합포 무덤에 묻힌 피장자의 성격을 통해 유추해 보건대, 해상교역 및 배후지로의 유통에 대한 관리/통제권과 물품의 출납 및 생산에 대한 통제권이 지역공동체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회재원이자 지배층에게는 권력창출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허진아 2018).



도면 5. 지배층의 고분

한반도 서남부지역에서도 기원전 1세기경 해상교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한 마한 엘리트들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기원전 1세기경부터 지배계층의 무덤에 유리 및 석제 구슬이 다량으로 부장되기 시작하며 서해안과 가까운 서부평야 지역에는 봉분을 가진 분구묘가 급증한다. 기원후 2세기 이후에는 충청 내륙지역으로까지 수입 구슬들이 유통되었고 분구묘와 유사한 주구토광묘가 축조되기 시작한다. 해안에서 내륙으로 구슬 교역이 확대된 것인데, 이와 같은 급격한 소비증가가 의미하는 바는 아마도 지역정치체들의 성장일 것이다. 거대한 마운드(mound)를 축조하기 위해 요구되는 대규모 노동 동원, 사회 비용 및 구조화된 시스템은 분구묘나 주구토광묘가 정치권력의 지도와 통제 하에 세워진 기념비적 건축물임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해상교역이 강화됨에 따라 마한사회 역시 철기시대 동남아시아 지역사회와 마찬가지로 구슬을 위신재로 사용하는 엘리트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사회정치적 복잡도가 심화되는 변화를 겪게 된다.

2) 지역사회의 경관 변화: 도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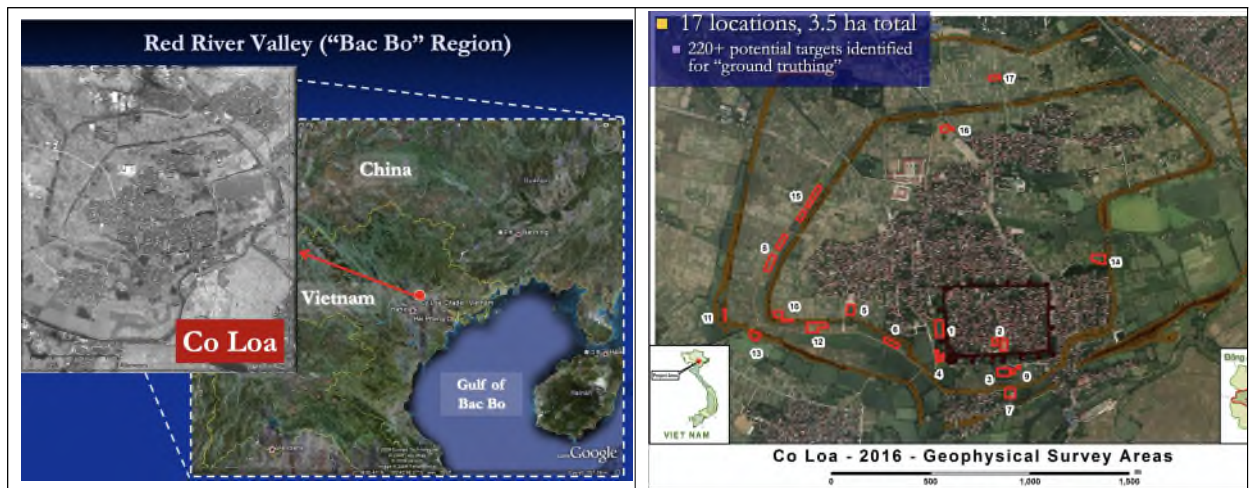
교역항의 운영은 그 지역사회의 경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 항만 설치는 여러 지역을 오고가는 상인들과 장인들이 만나거나 다양한 물품들이 교류될 수 있는 장소의 확보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에 해상교역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넓은 배후지(hinterland)가 형성되는 경관 변화를 가져온다. 해안과 연결되는 강과 하천의 수로를 통해 내륙지역으로 교역품들이 확산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지역과 교환이 용이한 곳에 재분배중심지 또는 도시교환중심지로도 불릴 수 있는 거점도시가 형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점도시에는 풍부한 물자와 원료 및 다양한 기술들이 유입되면서 수공업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다양한 문화가 결합(hybrid)되거나 혼재(mixed)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교역품을 저장하거나 도시를 방어하는 시설들이 출현하게 된다(Bellina et al. 2019). 국제성과 자율성이 담보된 교역도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외국산 물품이 거래되고 세금의 지급이나 물자를 판매 또는 재판매해야하므로 화폐의 유통이 활발해진다. 교역항에 인접한 배후지의 경우 높은 농업생산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商團과 항구의 식량지원을 담당하고 내륙수계망을 관리하여 지역 간 교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해상교역 활동을 뒷받침한다(허진아 2019).

기원전 1세기경 동아시아 해상교역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동남아시아 정치체들은 크라지협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교역 노선을 개발한다. 인도와 중국의 물품들이 교역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 것인데, 이를 계기로 기원후 1세기경 부남은 물품보관소와 숙소 등 항만시설을 갖춘 교역도시 옥에오를 건설하여(Manguin 2004) 남중국해-통킹만-크라지협-말라카해협-벵갈만과 메콩강을 연결하는 동·서양 교류 허브(hub)로 성장하였다(Tingley 2009:110). 또한 바삭(Bassac) 강어귀와 태국만(Gulf of Thailand) 사이 200km에 이르는 수로에 12개 이상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수백 개의 운하를 전략적으로 설치한다(Sanderson et al. 2003). 메콩 삼각주 상류의 풍부한 농업생산성과 해안도시의 상업자본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 곳에서는 몬순 계절풍을 기다리며 다음 항해를 준비하는 외국 상인들이 배를 정박시키고 식량을 구하고 물품을 거래하였으며(Vickery 1998:301) 내륙 운하를 통해 수입한 구리와 주석 같은 원자재를 이용하여 청동기를 만들거나 구슬·장신구류·금제품을 제작하는 등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졌다(Miksic 2003:18-22). 옥에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환호와 성벽의 존재는 이러한 수공업 생산과 교역 활동이 부남의 엘리트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고 통제되었음을 암시한다. 이렇듯, 옥에오 교역항의 운영은 운하시스템의 발달과 더불어 해안도시의 성장 및 거점중심지/재분배중심지 등 내륙지역 도시가 형성되는 변화를 가져왔고 결과적

으로 지역사회들 간 교류 확대를 이끌어내 부남 사회의 통합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베트남 북부 하노이에 위치한 코로아(Co Loa) 토성은 지역 간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해안과 내륙을 이어주는 교통중심지에 거대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Kim 2015). 운남성 고원 산지에서 발원, 하노이 시내를 관통하여 남중국해로 흘러가는 홍하(Red River)는 베트남 내륙 박보(Bac Bo)지역과 다른 외부사회들을 연결하는 교류 중추에 해당한다. 그러한 교류는 청동기시대부터 기원전 111년 한제국이 박보지역에 도래하기 이전까지 1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교류의 범위는 베트남 북부 동선집단을 비롯해 월(越)이라고 통칭된 중국 남부와 남동부의 공동체들 나아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다른 집단들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홍강의 주요 길목에 위치한 코로아 정치체는 교통의 관문으로서 경제적 이점을 누리며 도시국가로 발전해 나간다. 코로아 토성 내에서 발견된 유적은 크게 네 가지로 정착지·교장(窖藏; 매납구덩이)·생산공방·묘지로 구분된다. 코로아 엘리트들은 청동기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및 여러 완제품에 대한 생산과 교역을 통제하여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권력을 공고히 해나갔을 것이다. 기원전 3세기대 해상실크로드가 활성화되면서부터는 3중의 성벽을 가진 도시 성채이자 대외교류 및 정치권력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다.



도면 6. 코로아 토성의 위치와 범위(N.C. Kim 2019, 영남대학교 특강 발표문에서 발췌)

한나라 해상실크로드가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한반도 남부지역에도 서해 및 남해 연안이나 가항수로 종점에 기항지와 교역도시가 형성된다²⁾. 그리고 해

2) 광주 신창동·사천 늑도·해남 군곡리에서 발견된 낙랑·야요이 토기나 광주 신창동·광주 북룡동·나주 수문·나주 랑동·해남 군곡리·해남 마등·보성 금평·장흥 평화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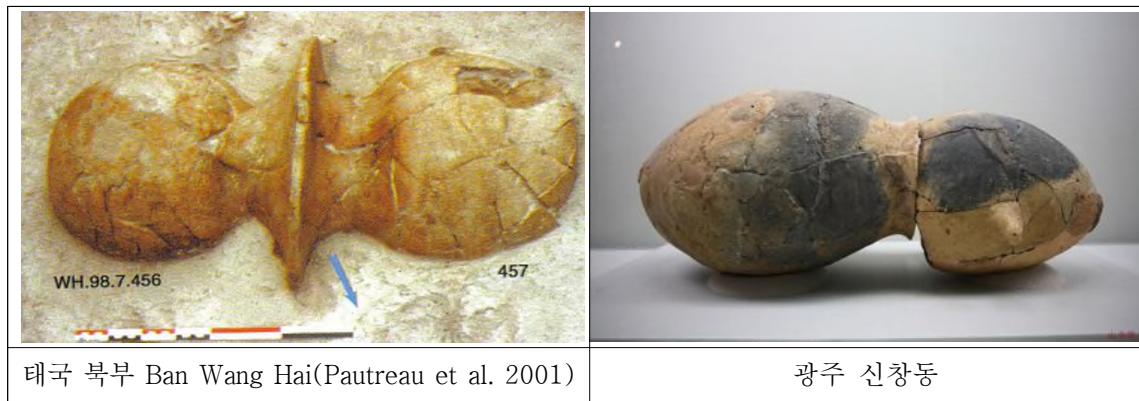
안과 연결되는 강과 하천의 수로를 통해 내륙지역으로 구슬 같은 해상교역품들이 유통된다(허진아 2018). 이는 여러 지역과 교환이 용이한 결절지에 재분배중심지 또는 도시교환중심지로도 볼릴 수 있는 거점도시가 형성되었고 넓은 서부평야 배후지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영산강 가항수로 종점인 나주 영산포 일대에 교역항이 설치되고 신창동에는 교역도시가 출현한 것이다. 곡류하천에 위치한 신창동(수계거리 약 30km 정도)까지는 하천/수로를 이용해 수월한 이동이 가능하며, 실제로 이 곳에서는 외형상 칼륨으로 추정되는 유리구슬과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쌀겨를 비롯하여 다종다양한 목재 농구 및 생활도구가 대량으로 발견된 바 있다. 이러한 자료는 광주 신창동 일대가 농경중심지이자 인구밀집지의 기능을 넘어 나주 영산포 교역항의 해상교역 활동을 뒷받침하는 교환센터로서 기능하며 영산강 상류지역 도시시스템 형성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음을 뒷받침한다.

3) 이데올로기의 공유

지역의 공동체들이 특정 교역품을 공유하는 것은 인적·물적 교류를 넘어 이데올로기의 공유까지도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 및 사회들은 특정 스타일이나 의례(특히 매장 의례) 등을 공유하며 더 깊은 문화적, 정서적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필리핀(Junker 1999)과 태국-말레이반도(Bellina 2014) 사례에서와 같이, 교역 엘리트 그룹이 특정 교역품(예: 인도산 홍옥수나 유리구슬, 링링오 장신구)을 공유하는 것은 필요한 동맹을 구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동맹국과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수단이다. 다시 말해, 해상교역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며 인적·물적·기술·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체들이 출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남중국해 연안에서 유행한 옹관묘 매장관습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묘제는 피장자와 피장자가 속한 사회의 관념과 집단의 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물질자료 중 하나이다. 베트남 중부 이남의 사헌집단은 신석기시대부터 옹관을 묘제로 사용하며 베트남 북부 동선사회와는 구분되는 매장문화를 영위해왔다(쯔엉 닥 치엔 2020:33). 사회문화는 기원후 2세기대 출현하는 참파의 토착문화로서 옹관의 형태가 포탄형·원통형인지 구형인지에 따라 각각 북부 사헌과 남부 사헌으로 구분되며, 전자의 경우 신석기시대부터 기원후 100년까지, 후자는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후 200-300년까지 유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Hung et al. 2013).

서 발견된 중국화폐는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



도면 7. 옹관묘 문화

사헌 문화권의 옹관묘 매장관습은 기원전 500년경 활성화된 남중국해 네트워크를 통해 태국·캄보디아·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주변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 시기부터 남중국해 공동체들 사이에 이주나 교역 등 해상을 통한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집단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매장관습을 공유하였다는 사실인데, 이처럼 묘제를 공유하는 집단들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유대감 및 소속감 증대가 이루어져 과도한 경쟁이나 빈번한 갈등을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상호 간에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쉽다.

이와 유사한 시기에 해상실크로드로 연결된 환황해 네트워크 문화권에서도 옹관묘 매장이 성행한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5세기 이후 연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옹관묘가 유행하기 시작하고 기원전 3세기부터는 장강중상류·황하중류·동중국해·발해만 등 동부 해안과 그 배후지로 유행지역이 급속히 확장되었다. 이처럼 전국진한 시기 옹관묘가 급속하게 재확산되는 현상을 두고 바이원상(2020:100)은 환황해 및 환발해지역 해양문화 발달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한반도 역시 기원전 2-1세기대 서해와 연결되는 광주 신창동 유적이나 일본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남해안의 사천 늑도 유적에서 옹관묘를 사용한 집단이 새롭게 출현한다. 이 시기는 한반도 남부지역에 마한·변한·진한 등 다양한 정치체들이 등장하고 초기국가 단계 사회가 성립하는 등 중대한 사회변화가 발생하는 획기에 해당한다. 또한 일본의 야요이 문화를 대표하는 요시노가리 유적에서도 기원전 108년부터 한나라 동경을 부장한 옹관묘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한다(하시구치 타츠야 2009:412).

이와 같이, 구슬교역을 매개로 해상의 광역교류망에 참여하였던 동아시아 공동체들 사이에는 옹관묘 매장관습과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이 널리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원전 3세기 이후 옹관묘 문화가 동아시아 각 지역의 연안에 급격하

게 확산되는 현상이 주목된다. 새로이 유입된 이주민들과 재지사회 주민들 간 역학 관계와 지역별 사회변동의 수준과 내용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2. 사회변동의 지역 다양성

교류이전 집단의 이주이전 해상교역을 통해 외래문화의 유입이 활발해지면 지역 내 새로운 중심지가 출현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의 거점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식량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거나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즉 해상교역이나 수공업(청동기·철기) 생산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평야가 적고 교통이 불편한 내륙 깊숙한 산간지역에서는 이를 담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항수로의 종점이면서 농경 배후지와 교류하기 쉬운 교통 결절지에 새로운 중심지가 형성되었을 것인데,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은 (1) **영산강 상류 일대**이다.

영산강 가항수로의 종점이 나주 영산포라고 전제할 때, 곡류하천에 위치한 광주 신창동(수계거리 약 30km 정도)까지는 하천수로를 이용한 수월한 이동이 가능하다. 추정컨대, 영산포 일대에 국제교역항이 설치되고 교역도시 신창동 주변으로 형성된 넓은 충적평야에서는 대규모 경작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완주 일대와 마찬가지로, 교통 결절지에 철기를 사용하는 토광묘 세력이 출현하고 나주 구기촌³⁾이나 광주 평동⁴⁾ 같은 거점중심지가 형성되는 등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외래문화가 유입되는 과정이나 사회변동의 기제는 다르다. 이 지역에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것은 해상교역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던 2단계로, 요녕지역 이외에도 동남아시아·남중국해 등 남방지역의 해양문화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실제로, 광주 신창동에서는 해양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관묘가 군집 조성되었고 외형상 칼륨으로 추정되는 유리구슬(남중국 및 동남아시아 생산품)과 수레바퀴·악기·복골·부채·토제 귀장식품⁵⁾·낙랑 및 야요이 토기를 비롯해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쌀겨와 다종다양한 목재 농구·생활도구가 대량으로 발견된 바 있다. 또한 정확

-
- 3) 다양한 단조철기류가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공반한다. 철기의 조합이나 우각형동기 등 청동기류는 영남지역과 유사하다. 형지공이 큰 철서는 연나라보다는 산동지역 중원과의 관련성을 나타낸다(정인성 2016a).
- 4) 분구묘 85기가 조사되었다. 경질무문 옹과 호를 용관묘로 사용한 단계부터 4세기대 제형 분구묘 단계까지 시기 폭이 길다.
- 5) 太鑲耳飾(굵은고리 귀걸이), 耳栓(원관형 토제이식) 등 한국에서 확인되는 대형 귀걸이 문화는 해로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전해져 형성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주경미 2012:189).

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송풍관편이 수습되었고 토기가마와 칠기 및 직조 도구가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다양한 수공업 활동들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⁶⁾. 이러한 자료는 신창동 일대가 국제해상교역 허브로서, 농경중심지 및 인구밀집지의 기능을 넘어 영산포 일대 해상교역 활동을 뒷받침하는 배후중심지이자 물자의 생산·교환·분배를 담당하는 거점도시의 역할을 하였음을 시사한다.

만경강·영산강의 하류이면서 환황해권 해상실크로드의 주요 경로였던 **(2) 서해안·서부평야** 일대에서는 성립기 내내 외부집단과의 교류가 꾸준히 이루어진다. 동북아시아 광역 해상교류 산물인 세형동검문화(당진 소소리·예산 동서리·아산 남성리·서산 동문동·보령 명천동·함평 초포리 등)가 이른 시기부터 성행하였고, 보령 관창리·영광 군동 등 마한의 사회정치적 발전을 상징하는 주구/분구묘가 가장 먼저 출현하기도 하였다. 서해안을 따라 형성된 분구묘에는 다양한 색상의 유리 및 돌 구슬이 다량으로 부장되었는데, 이는 한나라로부터 구슬 수요가 높아진 탓도 있겠으나 부남국이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해상교역을 장악하면서 동아시아 전역에 구슬교역이 성행하게 된 당시 국제 정세와 연동된다. 이 지역의 엘리트들은 동아시아 해상교역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여 교역 통제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하여 분구묘를 축조하거나 고가의 해상교역품인 유리구슬을 소비하며 정치권력과 지위를 공고히 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허진아 2019a).

뿐만 아니라, 서해 연안을 이용하는 해상교역 집단들의 잦은 왕래로 이 지역에는 외래의 기술이나 문화가 빠른 속도로 유입되거나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주구/분구묘 등 새로운 묘제가 가장 빠르게 출현한다거나 다양한 토기문화가 공존하는 현상이 어렵지 않게 관찰된다. 서해안과 연결되는 영산강유역 무덤들에서는 무문토기 전통에 삼각형점토대토기나 경질무문토기를 공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관찰되며 함평 표산·당하산·신흥동 등 일부 유적에서는 경질무문토기와 연질타날토기가 함께 출토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인접하고 같은 용관묘 문화권이면서 해상교류를 통한 외래문화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서해안·서부평야(삼각형점토대+경질무문+연질타날)와 영산강 중·하류(삼각형점토대+경질무문) 지역은 토기문화가 전개되는 양상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전환기 철기문화 유입의 역동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차이는 사회역량을 고려한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같은 내적요인과 집단·공동체 간 상호작용이나 외부사회와의 다양한 관계(원거리교역·집단의 이주·집단 간 갈등과 전쟁)와 같은 외적요

6) 유사한 시기의 또 다른 국제교역항인 사천 늑도에서도 해상활동 관련 수공업이 성행하였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일홍 2019)

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느 지역에서는 외부로부터 일반 주민이나 무사·상인·장인 등 특수 집단이 이주해오며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가 빠르게 형성되는 한편, 또 다른 지역에서는 외부집단과의 직·간접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모방이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해상교역망에의 참여가 쉽지 않은 동부산간내륙에서 연질타날 기술로의 전환이 기원후 3세기대가 되어서야 이루어진 것⁷⁾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한나라 해상실크로드가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되는 기원전 1세기 이후에는 서해안을 비롯해 **(3) 남해안** 일대 주요 연안에 교역항이나 港市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원삼국시대 패총 유적이 급증한다는 사실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항지 조성을 위한 연안·도서지역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김진영 2021, 허진아 2019a). 실제로 몇몇 패총유적(해남 군곡리·보성 금평)에서는 당시 구슬 해상교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유리구슬의 보수나 수리를 담당한 전문장인들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거푸집·슬레그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국제교역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던 기항지에서는 화천(14-40 CE 주조; 해남 군곡리·흑천리 마등)·대포황천(10-40 CE 주조; 장흥 평화리)·오수전(118 BCE-8 CE, 24-621 CE 주조; 여수 거문도·제주도 산지향)·대천오십(7-40 CE 주조; 제주도 신지향) 등 중국화폐가 부분적으로 유통되거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며 복골(해남 군곡리·보성 금평)을 이용한 점치는 의식이 치러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헌기록상 5-6세기대 전남지방이 백제의 지방사회에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암 시종·나주 반남을 중심으로 하는 **(4) 영산강 중·하류** 일대는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해야 하는 방대형의 마운드 무덤이 축조되거나 생산비용이 높은 대형의 전용옹관이 제작되는 등 마한 재지집단의 정체성이 더욱 강화되어가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고분의 입지와 규모, 구조 및 부장품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산강 마한집단의 사회정치적 수준과 백제와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들을 이어오고 있다.

마한의 정치적 독립성 여부에 관해서는 연구자들 간 견해차가 존재하나, 5-6세기대 영산강 중하류권 마한 재지집단이 가야 등 주변 사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

7) 전남 동부/남해안에서도 등장 시점만 놓고 보면 타날문토기와 장란형토기는 이른 시기부터 관찰된다. 그러나 타날문토기의 등장 이후에도 경질무문토기의 전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전북 서부와 전남 서부에서 이미 타날문토기만 이용하고 있던 시점까지도 경질무문토기가 활발히 이용된다. 타날문토기와 경질무문토기가 동일유구에서 공반되는 사례는 매우 많으며, 그 시기도 유구에 따라 1700 bp 까지 내려간다(김장석·박지영 2020:22-3).

8) 원삼국시대 패총의 출현 배경을 기후 한랭화에 따른 생계자원의 변화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서현주 1996; 최성락·김건수 2002).

도로 높은 사회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점에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다른 지방사회, 특히 전남의 다른 지역집단과 비교해보아도 영암 내동리 쌍무덤과 같이 지역엘리트가 재지전통의 무덤(분구)을 대형으로 축조하고 금동관·철검·구슬·중국자기 등 당대 최고 수준의 부장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⁹⁾. 매장 의례에 피장자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동관과 더불어 당시 고가의 위세품으로 통하던 구슬이 3,828여 점이나 부장된 사실은 내동리 쌍무덤 피장자의 부와 권력이 다른 지방사회 엘리트들(예를 들면, 유리구슬 천여 점이 출토된 나주 북암리 정촌 고분)과 견주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5-6세기 영산강유역 집단의 성장 배경으로 백제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주목하는 연구(김낙중 2016)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4세기후엽 이후부터 해안항로상의 포구를 중심으로 백제와 왜 및 가야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연안항로에 밝은 지역세력들(예를 들면 영암 옥야리 장동 1호분·함평 장고산·함평 장고봉·고창 봉덕리 고분 축조집단)이 성장하였고, 5세기중엽 이후부터는 백제와 왜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져 왜인들이 연안항로를 이용해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와 내륙 지역집단과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산강 중하류권 특히 영암 시종면과 나주 반남면 일대는 5-6세기대에도 여전히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광역교류망인 해상실크로드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이자 영산강 상류권 백제 지방도시로 향하는 관문으로서, 백제와의 교류를 위해 유입되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들이 이합집산하는 “경제 허브(Hub)”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유리구슬의 생산과 유통은 동아시아 해상교역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상교역이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교류망 즉 네트워크 형성에 주요 매개로서 작용하였다면, 이 네트워크의 일원이자 환황해권 해상교역 주도권을 확보한 영암 내동리 집단의 당시 영향력은 양직공도 방소국에 대한 기사(임영진 2019)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듯이, 백제나 가야를 비롯해 바다 건너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을 것이다. 바다와 강을 아우르는 고난도의 항해술과 선박·포구·도로 등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오랜 시간 국제교역을 통해 쌓아 온 인적 네트워크까지 당시 동아시아에서 영산강 해상교역 집단이 가졌을 사회경제적 위상은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주지하듯이, 4세기 후반부터 백제의 대외교류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해상교역이

9) 영암 내동리 쌍무덤을 제외하면 백제 지방사회에서 금동관이 출토된 사례는 나주 신촌리 9호분이 유일하다. 고흥 길두리 안동·익산 입점리·천안 용원리·공주 수촌리·서산 부장리·화성 요리에서는 금동관모가 발견되었다.

더욱 확대되어가는 방향으로 변화해간다. 5세기대 영산강 중하류를 중심으로 방대형·원대형·전방후원분 등 다양한 고총고분이 출현하는 배경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김낙중 2016; 한옥민 2019 참고). 거대한 마운드(mound)를 축조하기 위해 요구되는 대규모 노동력 동원, 사회비용 및 구조화된 시스템은 “분구”라는 형태의 영산강 고총고분이 정치권력의 지도와 통제 하에 세워진 기념비적 건축물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도 여기에 묻힌 피장자는 그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을 것이다. 필자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의 주요 원동력이 아마도 외부사회와의 오랜 교역을 통해 확립된 네트워크 즉 다양한 지역·집단과의 교역 파트너십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IV. 향후 연구과제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기원전 500년경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해상교류망의 확대는 전국·진한대 철기문화가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유입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남중국·중원·동북·북방 등 여러 지역의 철기문화가 해상을 통해 다발적으로 유입되면서 해상교류망의 변화에 따라 지역마다 다양한 사회변동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추정컨대, 영산강 중·상류 일대에는 외부집단의 이주나 교역품의 유통을 위해 재분배중심지·교역도시 같은 중심지가 새로이 형성되었던 반면, 서해안·남해안 일대에는 새로운 기술의 유입이나 문화접변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항지나 항구도시가 출현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원거리 교역에 참여하는 집단들 사이에 교환네트워크가 발달하게 되면서 지역집단 혹은 정치체들 간에는 상호작용 영역권이 형성되었을 것인데(Heo 2020), 이와 같은 사회변동이 마한 엘리트 매장문화에서 드러나는 지역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이, 마한의 사회정치적 발전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출현한 문화 혹은 기술이 다양한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었던 **(1) 사회경제적 연결망**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일상토기 등 가내수공업의 생산과 유통 단위를 파악하여 지역 내 생계교환망을 복원하거나 옹관·부장용 토기 등 재지계 위신재를 대상으로 엘리트네트워크를 추정하여 전남지역 마한의 사회 구조와 범위를 파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영암 내동리 일대에 5-6세기대 방대형 분구묘를 비롯하여 마한의 전통적 묘제인 옹관이 더욱 성행하는 현상은 이 지역의 공동체가 백제의 지방사회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교역 관련 정치경제적 주도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5-6세기 고총고분 집단과 백제 중앙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구슬 같은 고가의 해상교역품이 국내에 유입된 후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백제와의 **(2) 정치경제적 유통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슬의 국내 유통 및 소비가 백제 중앙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영산강 마한 집단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끝으로, 앞서 언급한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산강 **(3) 고환경 복원**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00년대 초 일제가 시행한 대규모 간척사업은 영산강 일대 지형 변화를 비롯해 동아시아 해상교역에서 주요 교통로 역할을 하였던 영산강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영산강 유역의 고대 경관이 크게 훼손되어 하천 수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을 고총고분 집단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교통로를 기반으로 분석되는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이나 GIS를 활용한 최적거리비용 등 고대 마한의 사회경제 활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영산강 유역권에 대한 GIS 기반 고환경 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 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문 출처

- 허진아, 2018, 「마한 원거리 위세품 교역과 사회정치적 의미-석제 카넬리안 구슬을 중심으로」, 『호서고고학』 41.
- 허진아, 2019a, 「초기철기-원삼국시대 구슬 해상교역과 환황해권 정치 경관의 변화」, 『한국상고사학보』 106.
- 허진아, 2019b, 「옥 에오의 구슬 생산과 교역, 동아시아 교류네트워크」, 『베트남 옥에오 문화: 바닷길로 연결된 부남과 백제』 2019 국제교류전 도록, 한성백제박물관.
- 허진아, 2020, 「유리구슬을 통해 본 동아시아 해상교류와 사회변동」, 『대형웅관 장송의례 복원 및 활용』, 국제학술대회자료집, 대한문화재연구원·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허진아, 2021, 「영암 내동리 쌍무덤 출토 유리구슬 성분분석: 5-6세기 영산강 고총고분 집단의 해상교역 네트워크 추정」,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영암 내동리 쌍무덤의 가치와 위상』,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전남문화재연구소.



마한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 가야역사문화자원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

2021.12.16

- 서재승 -

상상의 세계



I Contents

I. 유물은 말을 하지 못한다	1
II. 화합과 협력이 먼저다	4
III. 상상의 날개를 펼쳐라	7
IV. 고생 끝에 낙이 온다	17

Why? 마한사는 왜 주목받기 어려운 것일까?

> 수면 아래의 역사

> 추측이 난무하는 죽은 자의 세계

역사성

차별성

확장성

의지와 역량

■ 고증되어진 문헌자료 부족

■ 옹관, 아파트식 고분
■ 마한역사문화권 내 다수 지역에서 비슷한 마한유물 출토

■ 마한역사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 부족

■ 마한역사문화의 가치 재조명 노력 부족(현 시대에서 중요시하는 가치와의 연계/정책논리개발 부족, 예: 친환경, 다문화사회, 화합/평화...)

As-Is

고등학교 교과서에 기재된 마한역사 관련 내용 '1줄'
"4세기 후반 전라도는 백제 근초고왕의 지배에 들어갔다."

1. 마한역사문화자원이란?

유물은 말을 하지 못한다

(근본적인 문제) 문화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복잡하기 때문에 문화자원에 대한 분류가 어렵고, 가치관/신념 등 추상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명확한 개념정립이 어려움

문화의 정의

문화는 **사상,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도덕** 등의 규범,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Jary, D. and J. Jary. 1991)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문화기본법 제3조)

문화는 한 사회 또는 한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학, 생활양식, 공동생활, 가치관, 전통, 신념** 등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인 특징 (UNESCO, 2001, 세계문화다양성 선언내용 발췌)

향토문화의 정의

향토문화란 인간이 일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착하여 사회를 이루고 역사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형성된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역사문화자원의 정의

문화자원의 범위는 1.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전통 및 역사문화영역과 2. 공연, 전시, 문학 등 미학적인 영역, 3.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일상생활 영역 등임 (오재환, 2009)

이를 문화자원의 자원 내용에 따른 분류 유형으로 구분하면, 자연적 자원, 문화적 자원, 사회적 자원으로 분류되며, 역사 문화 자원은 유형과 무형문화자원으로 설명(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20)

영역	세부영역	내용
문화적 영역	역사문화자원	유·무형 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전시, 공연, 공연활동(판소리, 연극 등)
	생활문화자원	지역문화활동
사회적 영역	사회적 자원	경제활동자원, 축제 및 행사, 지역인프라자원, 이미지자원
자연적 영역	자연적 자원	자연·경관자원, 생태자원, 환경(기후)자원

마한역사문화자원이란, "인간이 마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착하면서 형성하게 된 **사상, 의상, 언어, 종교, 예술, 규범,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을 나타내는 마한 사회의 유·무형의 문화자원**"으로 정의

마한역사문화자원은 대부분 고분에서 출토된 부장품/유물이며, 역사적인 고증 자료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마한역사문화에 대한 명확성/구체성 모호→**마한역사문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콘텐츠, 일반 국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등이 매우 부족함** (팁!!) 마한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인간의 5감을 적극 활용하자!!

이문화 감지 요인

유형자원

시각



인종: 피부, 머리카락, 눈 색깔 등

청각

언어: 한, 일, 중, 영, 독, 불어 등



시각

후각

촉각



衣(의)



食(식)



住(주)

+@: 시각,청각,촉각
- 예술(음악, 미술 양식 등), 전통놀이 (씨름, 스모, 축제 등)



+



종교/신앙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무속신앙, 샤머니즘)
사상,이념, 규범(법/도덕), 가치관, 사후세계, 신화, 설화, 전래동화...

무형자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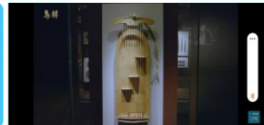



마한역사문화자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

콘텐츠

부족

+@ = **풍부**

역사교과서 1~17줄

마한역사문화자원은 대부분 고분에서 출토된 부장품/유물이며, 역사적인 고증 자료가 매우 부족함
그 결과, 마한역사문화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이 모호하여 각종 추측이 난무하며 역사교과서에 마한사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함. 즉, **마한역사문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콘텐츠, 일반 국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등이 매우 부족한 현실임**

가야문화의 핵심 키워드: 해상무역, 철기, 토기

가야(伽倻, 加耶, 伽耶)

- ▶ 가야(伽倻, 加耶, 伽耶)는 낙동강이 존재하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 존재했던 한국의 고대 국가로서, 가락(駕洛, 迦落) 또는 가라(加羅, 伽羅, 柯羅)라고도 불리었음
- ▶ 삼한 중 하나인 한반도 중남부 현재 김해시에 위치했던 변한의 금관가야(狗邪國)를 중심으로 변한의 12개 소국을 결집해 성립된 전기 가야 연맹이며, 고구려의 공격으로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 가야 연맹의 세력이 약화되자 5-6세기 경 대가야를 중심으로 후기 가야연맹국을 만들어져 562년에 사라졌음



해상무역

- 가야는 해안으로 개방되어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해상 루트를 통해 주변 **국과의 외교 및 교역이 활발** 추진으로 다양한 문헌에서 해상왕국 가야를 볼 수 있음

철기

- 철기 유물들의 경우, 쇠도끼 등의 일상 생활용품과 무기, 재갈, 말머리 가리개 등 장식 물품 등이 발견됨
- 철기는 경제/생산성, 권력, 생활편의 등에 영향을 미치며 **가야의 핵심 교역 품목**으로 활용되었음

토기

- 토기 유물의 경우 그릇받침부터 기와까지 일상생활용품들 뿐만 아니라 **상형토기** 까지 발견되어 **토기문화가 발달**되었음을 파악
- 왜계토기, 스에키 접시 등을 통해 일본과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1) 김해 가야문화의 잠재력과 가치

■ 김해는 한반도 최초의 해상무역국가이자 가야문화의 발상지로서, 찬란한 철기문화와 아름다운 토기문화를 선도하였음

한반도 최초의 해상무역국가

■ 한반도 최초의 해상무역 국가로써 삼한, 중국, 일본을 중계

- 가야는 한반도 최초의 해상무역국가로 삼한은 물론, 중국, 일본과 활발한 교역을 했으며 특히 일본의 고대문명발전에 큰 영향을 끼침
- 고구려, 신라, 백제 등 한반도를 넘어 일본, 중국, 인도, 유럽 등과 활발하게 교류했으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함



자료: 가야의 대외 교류와 영향 범위

아름다운 토기문화

■ 3~6세기 한반도에서 가장 수준 높은 토기 제작기술 보유
■ 가야의 뛰어난 토기 문화는 現 김해의 분청 자기 문화로 이어짐

- 가야의 토기 문화는 예술성이 높기로 유명
- 3~6세기 사이 한반도에서 가장 조형미가 뛰어났던 토기 문화를 꽃피움
- 가야의 토기문화는 김해 분청 자기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으며, 분청 도자기 축제와 같은 관광 산업으로 발전



찬란한 철기문화

■ 수준 높은 철제 기술로 1~5세기 동아시아의 철기문화 선도

- 김해일대에서 생산되는 철로 화려한 철기문화를 꽃피웠고 수준 높은 철제 기술로 동아시아의 철기문화를 선도하였음
- 이러한 철기문화의 발달로 현재 김해지역 산업단지에서 철기 관련 소재산업이 발달



가야문화의 발상지

■ 가야, 김해를 중심으로 화려한 가야 문화를 꽃피우다

- 금관가야는 김해일대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철을 통해 일찍이 철제 무기 기술이 발달, 막강한 군사력으로 가야 연맹을 주도



김해는 가야문화의 발상지로서 현재는 가야문화축제를 통해 가야문화의 가치를 전세계에 알리고 있음

2) 가야역사문화 유물

■ 가야와 가야금

- 가야금의 유래는 미상이나, 신라에 가야금을 전파한 우륵은 대가야 출신이라는 설이 유력함
- 우륵이 전한 12개의 가야금 곡 중 10개는 가야 지역 명칭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가야와 가야금

가야금의 유래

- 가실왕(嘉悉王 혹은 嘉實王)은 6세기경의 군주로서 어느 가야의 왕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우륵에게 명하여 당나라 악기모방하여 가야금을 제작함
- 우륵은 신라 진흥왕 12년(서기 551) 제자 이문(尼文)과 함께 가야금을 신라에 전파
- 삼국사기에는 우륵을 성열현(省熱縣: 지금의 합천) 사람이라고 적고 있으나 고려지방의 전설에는 대가야읍 쾌빈리의 속칭 '정정골'이라는 유래를 감안할 때 우륵은 이곳 고려 출신이라는 설이 유력

가야금의 12곡

- 하가라도(下加羅都), 상가라도(上加羅都), 보기(寶伎), 달기(達伎), 사물(思勿), 물혜(勿慧), 하기물(下奇物), 상기물(上奇物), 사자기(獅子伎), 거열(居烈), 사팔해(沙八兮), 이사(爾敍)
- 12곡은 당시의 지명(地名)을 전하고 있는데 하가라도는 남가야 혹은 가락국이라고 하는 지금의 김해지방의 음곡, 상가라도는 대가야라고 하는 지금의 고령지방의 음곡으로 추정
- 대부분이 지명으로서 당시 지명을 악곡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통해, 각 지역 가야소국들의 문화가 생성되었고 12곡 자체가 향토색이 짙은 가야의 지방속악(地方俗樂)이라고 추정

가야금 12곡의 지명 위치도



김해시에는 가야문화 관련 인프라 및 유적, 유물 등이 집적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가야문화권 최초로 가야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및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축제 진행을 위한 운영기반과 노하우를 보유

역사성



가야문화축제

가야문화축제

- ▶ 매년 음력 3월 15일, 가야의 왕도 김해에서 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의 춘향대제일을 맞아 열리는 축제
- ▶ 한반도 최초의 국제 도시였던 가야 문화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역사, 문화, 예술, 교육이 함께 어우러진 축제
- ▶ 축제 주요 내용
 - 수로왕 행차퍼레이드, 김해농악경연대회, 가야금 축제, 가야 차(茶) 문화 한마당, 가야 시티투어, 가야무술대전, ICT 가야 역사 체험관 등



수로왕 행차 퍼레이드



김해농악경연대회



가야무예예술대전



ICT 가야 역사 체험관

- 김해시는 1962년 가야 문화권 **최초로 가야문화축제를 시작**. 2019년까지 **57년간의 가야문화축제 운영 노하우 보유**
- 김해시는 1982년부터 김해가야문화축제에 **가야문화학술회를 신설**, 가야문화의 연구와 복원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음
- 2017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가야사복원'과 함께 **가야의 왕도 김해는 가야문화권의 중심도시**로 재도약
- **역사 문화도시 예비 선정**과 **대성동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로, 김해는 세계적인 가야역사문화 도시로 부상
- 세계적인 가야 역사문화도시의 위상과 가야문화유산 자원을 기반으로, 가야문화축제는 이제 세계인의 축제가 됨
- 가야의 왕도 김해는 **가야역사세계엑스포**의 개최지로 가장 적합



9

김해시에는 가야문화권 내 가야유물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토되고 있으며
가야시대 목걸이 **3점**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됨(2020)

차별성

김해시 가야 역사문화자원 보유 현황

- 김해시는 김해국립박물관, 김해문화의 전당, 김수로 왕릉, 수로왕비릉, 대성동 고분군, 김해패총, 대성동고분박물관, 봉황동유적, 분산성, 한옥체험관, 가야의 거리,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분청도자박물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가야문화축제, 분청도자기 축제, 가야금 축제, 허왕후 신행길 축제 등 다양한 가야역사문화자원 보유

합계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자료
	소계	국보	보물	사적	천연 기념물	소계	유형	무형	기념물	
86	15	-	4	9	2	44	27	3	14	27



김해분청 도자기 및 캐릭터 브랜드 보유

- 김해는 낙동강하류의 기름진 평야지대로 인해 예로부터 우수한 점토와 수로를 통한 운송이 가능하여 도자 생산지로서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김해는 김해토기에서부터 가야토기, 조선 분청사기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도자문화의 중심지로 현대에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김해분청도자기 브랜드 [토다와]와 김해도자기 캐릭터 [옹이]를 구축하고 있음



김해시는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축제 및 관광지 등 연계 가능한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훌륭한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여 타 지역 관광객의 접근 편의성 높음

확장성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 보유

“도시 전체가 가야문화 박물관인 김해”

- 국립김해박물관, 패총 전시관 등
- 다양한 문화재 전시관 존재
- 다양한 철기/토기문화재 보유
- 가야사 복원사업 추진 중
- 봉황동 고분 유적지
- 수로왕릉/가야의 거리 조성



다양한 문화축제 인프라 보유

“가야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축제 운영”

- 가야문화축제, 김해분청도자기 축제
- 김해문화재 야행, 허왕후 신행길 축제, 가야금 축제, 김해예술제, 진영단감축제, 여의사랑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 축제 운영 중



역사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의지 표명

“역사문화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김해시의 강한 의지”

- 역사문화도시로 예비 지정(2018.12.26)
- 가야사 복원사업의 핵심도시
- 가야문화 이슈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 다양한 역사문화 축제 개최
- 가야 고분군 UNESCO 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대성동 고분군, 2019.01)



접근이 용이한 교통 인프라 보유

“광역 교통망을 두루 갖춘 국제행사에 최적화 된 도시”

- 광역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의 중심지
- 수도권과 내륙, 부산을 연결하는 KTX
- 김해공항의 국내선과 국제선 및 이틀 도시 중심으로 연결하는 경전철



11

또한 역사문화관광도시 브랜드 구축과 가야역사문화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중임

의지와역량

김해 역사문화도시예비 지정



- 김해는 2000년 가야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풍부한 전통문화 보유
- 55만 인구의 33.6% 청년들이 선호하는 현대적 문화 보유
- 경남에서 가장 많은 2만 7천 외국인 거주자를 지닌 다국적 문화 보유
- 김해만이 가진 문화적 특수성과 다양성으로 역사문화도시로 예비 지정

UNESCO 세계문화유산



- UNESCO 세계문화유산 대성동 고분군으로 입증되는 고대 국제도시 김해
- 가야문화를 통해 인도, 일본, 중국등과 가장 활발한 문화·학술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가야 도시 김해
 - 대성동 고분에서 출토되는 일본의 왜계갑주, 중국동북계의 말 장식, 인도의 철기, 구슬등이 김해가 중국, 일본, 인도와 교류했던 고대의 국제도시였던 것을 입증
 - 김해시는 인도, 일본, 중국등과 국제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이어오고 있음
 - 특히 인도와는 김수로왕과 허왕후를 모티브로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이어가고 있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20.6.9 제정·공포)



- 제1장(총칙)
- 제2장(가야역사문화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 제3장(연구조사 및 발굴·복원)
- 제4장(계획적 정비 등): 제1절 정비구역 지정 등, 제2절 정비비사업의 시행 등
- 제5장(추진체계 및 지원시책 등): 제1절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 등(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 가야문화권발전기획단, 가야역사문화권발전협의회), 제2절 지원시책
- 제6장(보칙), 제7장(별칙), 부칙

What? 마한역사문화가 주목받기 위한 선행조건은?

> 마한역사문화 1번지 주장 NO!

> 마한문화권내 지자체간의 화합과 협력이 먼저다!!

법/제도
구축

역사문화도시
지정

세계유산
등재

마한역사문화
국제엑스포
개최

-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속적인 예산 확보 및 인프라 구축, 연구사업 추진)
- 마한역사문화권 내 기초지자체장과 광역시가 협업하여 차기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정책논리개발

- 마한역사문화권 내 기초지자체장과 광역시가 협업하여 문화재청, 문체부 등 중앙정부의 핵심사업/정책과제/역사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 마한역사문화권 내 기초지자체장과 광역시가 협업하여 마한사 가치 재조명 및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발굴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 추진
- 마한역사문화콘텐츠 개발, 마한역사문화콘텐츠 DB 구축 및 활용

- 마한역사문화권 내 기초지자체장과 광역시가 협업하여 기재부의 국제엑스포 선정을 위한 기본/실행계획 수립

To-Be

고등학교 교과서에 기재된 마한역사 관련 내용 '1페이지 이상'
"4세기 후반 전라도는 백제 근초고왕의 지배에 들어갔는데...000."

1. 법/제도 구축_김해시 사례

화합과 협력이 먼저다

가야사 복원에 대한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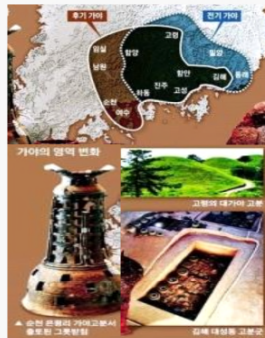
전략5.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17년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5개년 계획에서 가야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를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 주요국정과제(67)로 지시

전략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가야 역사 문화의 발굴을 통한 영호남 협력 사업들로 영호남의 화합을 촉진시키고, 해당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야역사문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

문화재청 가야사 복원사업



보수·온전한 복원으로 문화유산 역사성 회복

가야역사문화재의 활발한 발굴과 연구·조사로 가야역사문화에 복원사업에 박차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및 콘텐츠 활용 확대

가야역사문화유산의 단순 보존이 아닌 활용에 주안점

세계 유산 등재 체계화 및 관리강화

대성공분을 포함한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가야역사문화유산의 관리 강화

문화유산관리체계 고도화

가야역사문화유산의 조사연구 강화를 통한 자체 역량 강화

민선 7기 경남 문화체육관광개발계획



'함께 누리는 문화생태계 조성'정책

20 가야사·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통한 향유 기반조성 계획수립 및 시행

가야사 연구복원과 활용사업도 추진

'19.05부터 중앙정부의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의 가야사연구복원과 활용 사업을 추진

김해시 중기 발전계획



김해가야역사문화도시 육성 5대 핵심과제

-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가야복원 2단계사업)
- 가야국가사적지 정비사업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 가야사 연구자료 확보&국가 지정문화재 승격
- 가야문화유적지 탐방사업

김해가야사 복원 2단계 사업

김해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가야의 광장, 가야스토리 벽, 테마공원 인 고대정원, 가야문화체험관, 가야문화센터

■ 김해는 가야문화권 도시 최초로 역사문화도시 예비 지자체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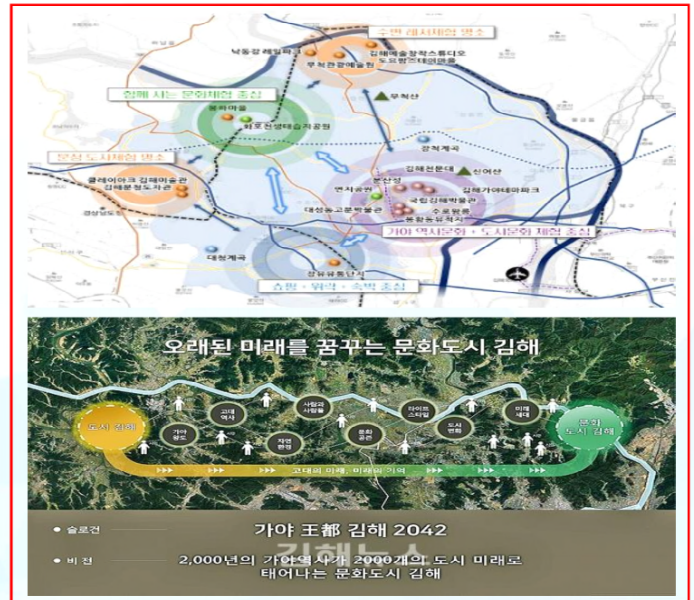
- 김해시가 **역사문화도시**로 지정되면 경주(신라권) 공주·부여(백제권) 문화도시에 이어 **가야권**을 대표하는 도시로 **인증** 받게 됨
- 제1차 문화도시 지정 현황은 7곳이 선정되어 있음
- 김해는 2018년 12월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로 문화도시 예비 계획이 ‘승인’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제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결과(광역시·군·구) >

지자체	사업명
대구광역시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문화도시 대구
경기 부천시	생활문화도시 부천 -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
강원 원주시	시민이 만들어가는 환경문화도시 원주
충북 천주시	가족문화 향유도시 천주
충남 천안시	시민의 문화지주권이 실현되는 문화특화도시 천안
전북 남원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리문화도시 남원
전북 고창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증진하는 철학문화도시 고창
경남 김해시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
제주 서귀포시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
부산 영도구	예술과 도시의 선, 영도



15

3. 세계문화유산 등재_김해시 사례

1) 가야문화축제의 세계화 추진

- 김해는 1962년 가야 문화권 최초로 가야문화 관련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야문화축제를 통해 국내 최고의 역사문화산업 기반 및 축제의 세계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가야문화축제 기반시설 조성과정

1 가야의 거리 조성 2 가야테마파크 조성 3 가야문화 축제장 변경

- 지역(갈매) 축제로서 가야의 거리 조성
- 전용 축제장 조성을 위해 2015년 가야테마파크 조성
- 김해가야문화테마파크에서 가야의 거리로 축제 행사장 이동
- 연중(가야문화체험)이 가능한 축제 하드웨어로 업그레이드
- 특색 있는 축제 개최를 위해 체험 시설 및 전시(인형) 디자인 개발
- 행사프로그램만 배치하여 축제 전용 공간으로 활용
- 기존의 거리를 가야의 거리로 조성 및 리모델링
- 가야광장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

가야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구성



- 새로운 환경에 빠른 대응과 체계적인 축제 진행을 위해 가야문화 축제 조직 위 구성
- 수익사업을 통해 축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기 위한 재단 설립

축제 자원 마련



- 축제 자원마련을 위해 수익창출 방안으로 유료 프로그램 운영 및 부분 입장료 징수
 - 무료입장으로 운영하던 가야문화축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부분 유료로 전환
- 축제기간 가야의 거리 입장료: 6,000원 ~ 7,000원으로 가격 책정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공영 입장료 7,000원)

가야문화축제 운영기반 확충

김해 역사문화도시예비 지정

- 김해는 2000년 **가야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풍부한 **전통문화** 보유
- 55만 인구의 **33.6%** 청년들이 선호하는 **현대적 문화** 보유
- 경남에서 가장 많은 **2만 7천 외국인 거주자**이 지닌 **다국적 문화** 보유
- 김해만이 가진 문화적 특수성과 다양성으로 역사문화도시로 예비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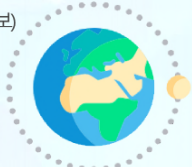
UNESCO 세계문화유산

- UNESCO 세계문화유산 대성동 고분군으로 입증되는 고대 국제도시 김해
- 가야문화를 통해 인도, 일본, 중국등과 가장 활발한 문화·학술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가야도시 김해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

- 2019년 김해가야문화축제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50만명(경남도민일보)
- 글로벌 축제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국제 세미나 실시
- 김해가야문화 축제는 이미 세계인의 축제
- 인도, 일본 등과의 문화·학술적 교류 뿐 아니라 산업적 교류까지 가능한 잠재력 보유
- 김해는 세계적 가야문화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장소



2) 가야역사문화국제엑스포 개최

■ 김해는 영·호남 6개 광역시·도에 걸친 가야역사문화권의 위상제고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적 연계·협력 사업의 출발로 가야문화를 주제로 한 최초의 국제엑스포를 김해에서 개최하려는 기본계획을 수립함

가야문화축제 기반시설 조성과정

국정과제 실현

- 국정과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실현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공존이 함께하는 가야를 소재로 한 행사 개최로 관광·여가 트렌드 변화와 정부의 관련정책에 부합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가치 확산

-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국제위상 강화 및 소통하는 문화유산 혁신을 통한 미래변화 선도
- 가야고분군의 콘텐츠 구축으로 세계유산의 가치 확산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세계유산 등재 기념 엑스포 행사 개최로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화 기반 마련

영호남 통합의 가치 실현

- 가야문화권 소통·화합의 행사 개최로 영호남 통합의 가치 실현
- 영호남 공동 행사로서의 위상 확립과 가야문화권 지역전체 성과 및 효과 확산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실현
- 가야문화권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참여 유도

가야역사세계엑스포
GAYA Discovery EXPO
개최 당위성

김해시 지역경제 활성화

- 가야역사문화와 김해시 관광자원과 연계
- 역사문화관광산업 활성화
- 지역일자리 창출

가야역사문화 신산업화 선도

- 가야역사문화 신산업 자원 발굴
- 김해시 신성장동력 육성

역사문화도시로서 국제적 위상 확립

- 한국 역사문화 및 가야문화관광의 세계적 교류 및 협력의 장 마련
- 글로벌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김해시의 국제적 위상 확립

How? 가야사를 현 정부에 어떻게 부각시켰는가?

➤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

➤ 글로벌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자!

역사와곡

동서화합

다문화사회

친환경

■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반박할 터닝포인트로 가야사 활용

■ 우리나라 정치사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라도와 경상도를 화합시켜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 우리나라 최초의 다문화가정을 꾸린 김수로왕을 모티브로 활용
■ 해상무역의 중심지인 가야의 특징(해외교류 활발, 해외상인 장기 체류 등)을 활용하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유적지/산업 등과 연계

■ 현 시대에서 중요시하는 가치와 연계하여 전기가야(금관가야)의 멸망 원인을 설명하고 친환경의 중요성 강조

결과

정부와 국민에게 가야역사문화를 알리고 호기심 유발
정책사업 추진 소재(설득자료)로 활용(국정과제 채택, 국가사업 발굴)

가야사 역사왜곡

- 부족한 가야사 조사 틈을 이용, 일본이 임나일본부설 주장으로 역사왜곡
-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가야사 발굴 필요성 제기

가야사 역사왜곡 유발

가야사와 임나일본부설

- 임나일본부설은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까지 일본 야마토(大和) 정권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 진출해 백제·신라·가야를 지배했다는 주장
- 6세기 초 『일본서기(日本書紀)』 기록에 나온 '임나사현을 백제에 할양했다'는 내용을 토대로 한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 왜곡 중 하나 국내 학계는 전라도 동쪽 섬진강 기슭 순천·광양·여수 일대를 실제 임나 4현이자 서쪽 끝 가야 4현으로 주장
- 일본 연구자들은 임나 4현을 전라도 서쪽 영산강 일대로 보고있으나, 구체적 위치를 밝히지는 않음



- 김해 대성동고분에서 지배자 상징인 통형동기와 파형동기가 일본보다 많은 양이 발견되면서 임나일본부설 반박 자료로 사용
- 이후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가야사 발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

출처: 중앙일보, 한겨레 전남순천고대사토론회, 유두보 발굴당, 경남신문

19

2. 동서화합_가야유적 분포현황

가야 유적분포와 가야문화권 환경

- 가야문화권은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중 6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야문화권에 속함
 - 경남(18개 시·군), 경북(3개군), 전남(7개 시·군), 전북 7개 시·군, 부산(9개 구), 대구 (1개 군) 등 총 45개 지자체
- 가야문화권은 해안으로 개방된 한반도 동남단에 위치, 한태평경제권으로의 접근성이 좋음

〈가야문화권 입지 환경〉



자료: 가야문화권 및 경남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중간보고, 18p.

2) 경남의 가야문화 유적 환경

가야관련유적 현황

- 경남지역은 여러 가야문화 유적지에서 다양한 유물이 광범위 하게 발굴 됨
- 발굴된 가야유적·유물의 62.1%가 경남에 분포

구분	합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광주	부산·대구·울산·세종·강원·충청
합계	665 (100.0)	381 (62.1)	59 (10.4)	57 (10.1)	42 (7.4)	5 (0.9)	44 (7.8)
1 무덤유적	252 (44.6)	142 (66.3)	35 (13.9)	18 (7.1)	24 (9.5)	2 (0.8)	26 (10.3)
2 생활유적	181 (32.0)	123 (68.0)	15 (8.3)	25 (13.8)	4 (2.2)	2 (1.1)	12 (6.6)
3 산업·생산유적	21 (3.7)	19 (90.9)	1 (4.8)	-	-	-	1 (4.8)
4 정치·국방유적	14 (2.5)	6 (42.9)	2 (14.3)	1 (7.1)	5 (35.7)	-	-
5 기타유적	6 (1.1)	3 (50.0)	-	-	3 (50.0)	-	-
6 복합유적	91 (16.1)	58 (63.7)	6 (6.6)	13 (14.3)	6 (6.6)	1 (1.1)	5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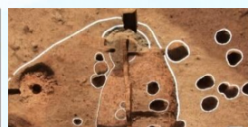
자료: 문화재청, 2019, 가야 자료 총서



무덤: 대성동 고분군



생활 유적: 김해 패총



산업: 김해 하계리 제련로



국방: 함안가야리토성



제사: 김해 유하리



생활·거주: 김해 봉황동

가야문화 유물

- 가야문화 유물은 57개 지자체에 분포하고 있으며, 가야 독자적인 양식의 토기를 생산하고 있음
- 대가야양식 금제이식과 왜계갑주, 대가야산 용봉문화대도는 다양한 지역에서 출토되어 하사품/위신품 등으로 추정됨(국립박물관, 2019)

출토품	허로모양 토기	긴목항아리와 바리모양그릇 받침_36cm	긴목항아리와 바리모양그릇 받침_39.3cm	긴목항아리와 바리모양그릇 받침_39.9cm	원통모양그릇 받침_49cm	원통모양그릇 받침_64cm	원통모양그릇 받침_47.5cm	원통모양그릇 받침_61cm	원통모양그릇 받침_66.1cm	원통모양그릇 받침_62.1cm	원통모양그릇 받침_67.5cm	짧은목항아리 와바리모양그 릇받침	굽다리접시_9 cm	굽다리접시 _20.7cm	굽다리접시 _15.7cm	굽다리접시 _13.2cm	굽다리접시 _12.8cm
출토지역수	1	1	1	1	1	1	1	1	1	4	1	1	1	1	2	1	2
출토품	손잡이를단바 리	바리모양그릇 받침	뚜껑접시	집모양토기 _17.6cm	집모양토기 _6.7cm	집모양토기 _19cm	배모양토기	왜계토기 하지키 _10.3cm	왜계토기 하지키_21cm	왜계토기 _아요이계토기	왜계토기 _아요이토기	말탄사람을 새긴단지	二得知 이득지가적힌 토기_문자	굽다리 긴목항아리	굽다리접시와 뚜껑	뚜껑접시 스예키	굽다리접시 스예키
출토지역수	1	1	1	1	1	1	3	2	1	2	2	2	1	2	2	2	2
출토품	넓은입구명 단지	청자담모양 그릇	말탄무사모양 불잔	사슴모양불잔	배모양토제품 _24.5cm	배모양토제품 _22.5cm	거북문양물새 긴흙구슬	토기류	토기류2	토기편	대부파수부완	개_뚜껑	개_뚜껑2	연질토기편	경질토기편	대부장경호	단경호
출토지역수	1	2	2	2	1	1	1	3	1	1	1	2	1	1	1	1	1
출토품	말집파상문이 장식된토기	목짚은단지	목긴항아리	굽다리접시	그릇받침	아라가야 양식토기	금관가야 양식토기	소가야 양식토기	비화가야 양식토기	대가야 양식토기	재갈	이동식부두막 전금관가야중 하지	관식	말방울	말방울_4.3c m	손칼과뿔_문자	목걸이
출토지역수	1	2	2	2	2	20	2	15	14	15	3	2	2	1	2	1	1
출토품	토기가마터	말안장	기와	기와편	시루편	벼루편	석렬	판석 배수집기시설	중국동전 _반량전	중국동전_화천	빛모양장신구_ 동물배	손칼	사슴뿔 머리장식	고리자루큰칼 _78.7cm	고리자루큰칼 _76.4cm	고리자루큰칼 _30.3cm	고리자루큰칼 _77.3cm
출토지역수	1	3	1	1	1	1	1	1	2	2	2	1	3	1	1	1	2
출토품	고리자루큰칼 _82.6cm	고리자루큰칼 _88.5cm	고리자루큰칼 _82.2cm	고리자루큰칼 _85.1cm	고리자루큰칼 _74.2cm	고리자루큰칼 _113.1cm	큰칼_64.1cm	큰칼_85.4cm	쇠투검창	쇠화살촉	쇠망치	쇠집게	덩이쇠	미늘쇠	왜계갑주	황청판관 _어깨가리개 뿔이달린투구	비늘갑옷 _목가리개 _중장판투구
출토지역수	0	2	1	1	1	1	1	1	1	2	1	1	1	1	14	2	2
출토품	비늘갑옷	청이달린투구	중장판갑옷 _목가리개투구	중장판갑옷과 투구	중장판갑옷	중장판투구	말머리가리개	말갑옷	재갈2	발걸이	쇠도끼	철술	철기류	손잡이가 오각형인갈	철검_쇠낫	철도자_쇠손칼	대가야산 용봉문화원대 도
출토지역수	2	1	1	1	1	1	1	1	0	1	2	1	4	1	2	2	8
출토품	금귀걸이 _6.6cm	금귀걸이 _5.6cm	금귀걸이 _7cm	금귀걸이 _7.1cm	금귀걸이_명	금관	금동관	허리띠꾸미개	대가야양식 금제이식	유리그릇	수정목걸이	금박유리목	방백을칠한 채색목	예안리마을 사람들	편도인골	순창	제사유적지
출토지역수	1	3	1	1	2	1	1	2	15	0	2	2	1	2	1	2	3
출토품	석곽묘	토곽묘	무덤배지	봉수													
출토지역수	3	1	0	3													

출처: 국립박물관, 2019

21

3. 다문화사회_가야문화콘텐츠 현황

가야 교역 국가/지역

- 가야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가야는 신라, 백제, 고구려, 중국(남방, 북방계), 일본, 서역과 교류가 있었고, 육로(1.중국 중원-황하-서해(해로)-한반도, 2.중국 중원-요령성-(육로)-한반도)와 해로(구야한국(김해)-일본 쓰시마-이키-하카타)가 존재 (국립중앙박물관, 2019, p.27)



토기 유물

- 가야문화 관련 토기 유물은 그릇받침부터 기와까지 일상생활용품이 많으며, 사슴, 배, 집, 화로, 말 탄 사람/무사 등 **상형토기**를 만드는 문화가 나타남
- 아요이/하지키 왜계토기, 스예키 접시 등 **일본과 교류**가 있었으며, 이득지가 적힌 토기 등으로 **문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철기 유물

- 가야문화 철기 유물은 쇠도끼 등 **일상 생활용품**과 검, 갑옷, 투구 등 각종 **무기** 제품이 있으며, 재갈, 말머리 가리개 등 **말 장식 문화**가 나타남
- 반량전, 화천, 왜계갑주 등 중국, 일본과의 교류가 있었으며, 용봉문화대도와 고리자루 큰칼은 다양한 지역에서 출토되어 위신품이나 하사품으로 추정됨(국립중앙박물관, 2019)



■ 청동기, 옥기, 금제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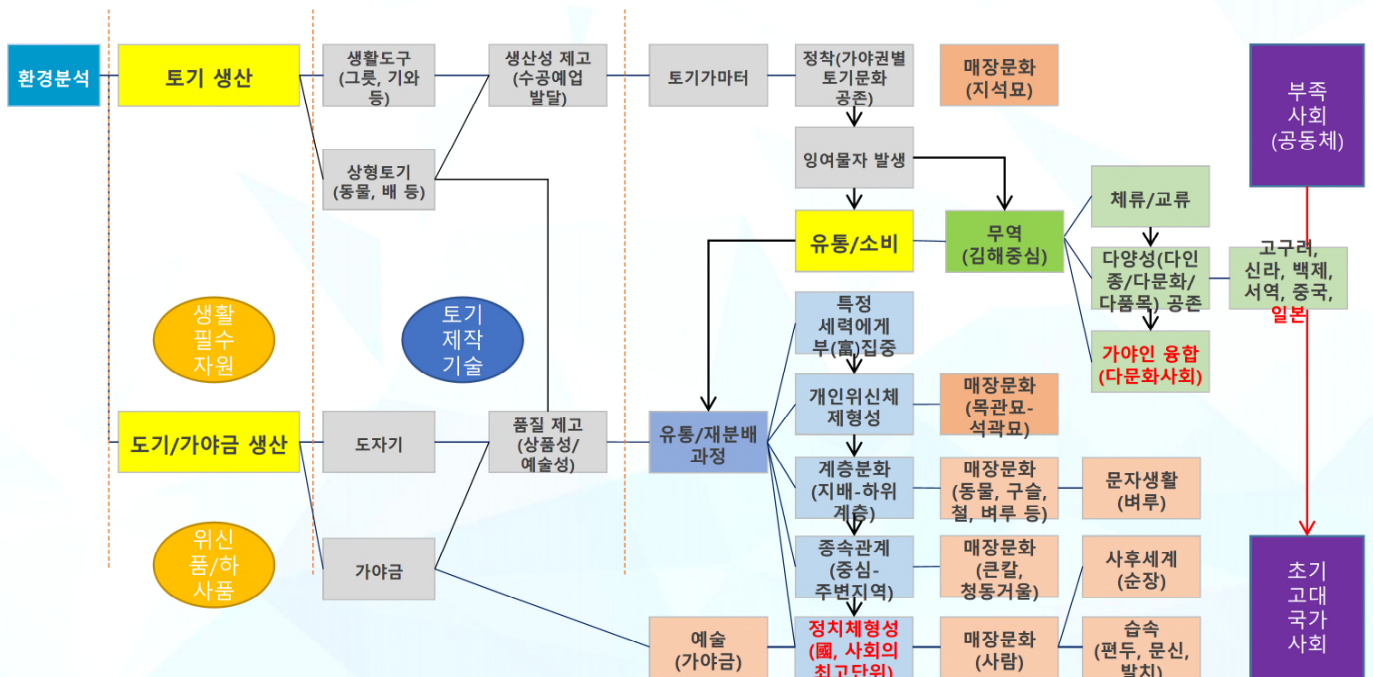
- 가야문화 관련 **청동기, 옥기, 금제 유물**은 대부분 지배계층 위신품과 하사품으로 **가야시대 신분사회를 추정할 수 있는 단초**가 됨
- 중국후한의 청동거울, 금박유리옥 등 중국, 서역과 교류가 있었으며, 대가야양식 금제이식은 고령, 고성, 거제, 산청, 순천, 옥전, 임실, 장수, 진안, 하동, 함양, 함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음
- 그 외, 동물 뼈와 사슴 뿔, 예안리마을 사람들, 편두인골 등이 출토되어 가야는 **동물 매장문화와 사머니즘, 순장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구분		출토지역	구분		출토지역
청동기류	한국식동검	1	금기류	금동관모	1
	청동그릇	6		금귀걸이	12
	청동술	4		금관	1
	청동거울	1		금동관	1
	사신격자무늬거울	1		허리띠꾸미개	1
	청동투갑창			대가야양식금제이식	15
	중국후한의청동거울	2	기타	판석_배수집기시설	1
	바람개비모양동기	2		손칼과뿔_문자	1
	통모양동기	2		시루편	1
	청동칠두령	1		벼루편	1
옥기류	거북문양을새긴흙구슬			예안리마을사람들	2
	목걸이			편두인골	1
	수정목걸이	1		빗모양장신구_동물뼈	2
	금박유리옥	1		사슴뿔머리장식	3
	방색을칠한채색옥	2			

출처: 국립박물관, 2019

23

- 가야는 동아시아에서 대한해협을 잇는 문화 전달자이자 철 생산과 수출 교역항으로서 바닷길을 이용해 주변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당시 한반도에서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물자를 자랑하였고, 모든 문화와 인종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며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성장함
- 김해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철기를 가져오는 집산지과 소비지이며, 철 교역을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교역지였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와 지역 사람들의 하위문화가 응집되어 있으며, 철기 생산과 유통을 통해 힘과 번영을 이루어 초기 가야를 대표하는 국읍으로 발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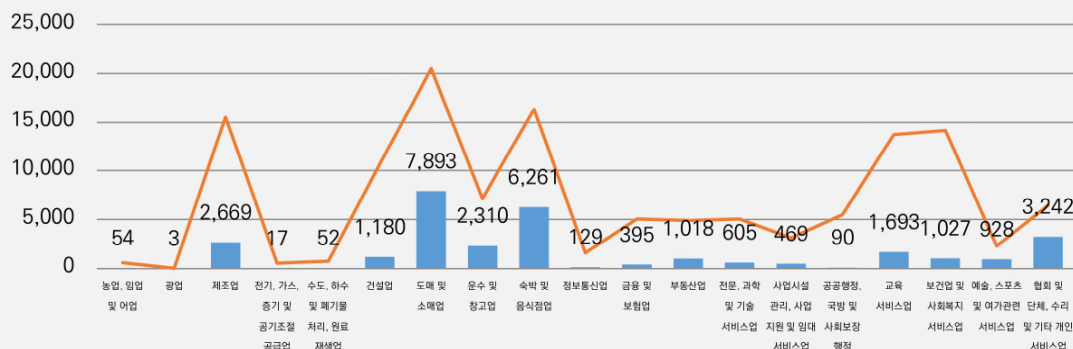


구분	가야문화권	마한문화권
국정과제	가야역사문화권 조사·정비 명시, 주요 국정과제(67)로 지시	차기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목표로 마한사 복원·정비 계획 수립
법/제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가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마한)
재조명 명분	영호남의 통합, 동서화합, 역사왜곡	자치분권
문화재청 정책방향	가야문화권 복원사업 추진, 역사문화도시 예비 지자체로 지정	??
광역시/지자체	경남(가야문화연구·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잠정목록 수록 및 등재, 가야사 3단계 조성사업 추진) 김해시(연구기반: 가야사 2단계 사업 추진, 가야사 연구복원: 국립	??
정책방향	가야역사문화센터 유치, 세계유산등재: 김해대성동고분군 복원, 유적지환경정비: 가야사 연구자료 확보, 국가지정문화재 승격가야왕궁 복원, 가야시민광장 조성)	
박물관 수	김해시 3개(국립김해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나주시 1개(국립나주박물관)
테마파크/테마열차 등	김해가야테마파크, 가야의 거리(2.1km), 가야왕도 테마열차	??
핵심 콘텐츠	무덤(고분/유물), 철기, 토기	무덤(옹관)
관련 브랜드	지역CI(가야왕도 김해), 역사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도자기 캐릭터 구축 '옹이'	??
문화권 지역 수	6개 광역자치단체, 45개 기초지자체	영산강 유역 22개(?) 기초지자체
?중추 지역	김해(전기가야_금관가야), 고령(후기가야_대가야)	나주?? 영암?? 해남??
교과서 기재분량	약 1페이지	1줄("4세기 후반 전라도는 백제 근초고왕의 지배에 들어갔다.") ~17줄
관련 축제(21년 기준)	가야문화축제(43회), 김해분청도자기축제(18회), 허황후신행길축제(8회)	나주마한문화축제(7회)
세계유산등재	김해대성동고분군 등 일대	추진 중
국제엑스포	가야역사문화국제엑스포 기본계획 수립(기재부)	??
킬러 콘텐츠	??	??

고생 끝에 낙이 온다

■ 김해시 전체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은 8.9%임. 도자기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43.7%)과 1차금속 제조업(69%),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기구 제외)(75.3%)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김해시는 철기, 도자기 산업이 해당 제조업 분야의 큰 비중을 차지

- 김해시 사업체수는 1. 도매 및 소매업(26.3%), 2. 숙박 및 음식점업(20.8%), 3. 제조업(8.9) 순임
- 제조업 중 도자기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비율이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의 43.7%를 점유, 제철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 1차 철강제조업이 1차금속 제조업의 6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이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의 75.3%를 점유하는 등 철기, 도자기 산업이 김해시 제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함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경상남도, 「경상남도사업체조사」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소계	2,397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585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6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806

마한역사문화의 가치는 크게 역사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산업적(경제적) 가치, 국가적 가치의 4가지 가치로 구분될 수 있음

마한역사문화의 가치



역사(고고학)적 가치

- 마한문화의 유물은 일본과 중국, 서역과 교류를 추정할 수 있는 귀중한 유산으로써, 고분군에서 출토된 부장품은 마한사를 이해하고 고대국가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그 역사적(고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사회문화적 가치

- 마한은 한반도의 중점적인 해상왕도로써 가야, 중국, 일본과 활발한 교역을 통해 문화교류를 이뤘으며, 현 시대의 글로벌 이슈인 다문화 사회, 다인종의 공존, 화합, 평화 등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



산업(경제)적 가치

- 문화산업은 고성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향후 마한문화를 활용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엑스포 개최 등 역사문화산업 자원 발굴과 마한문화산업을 지역문화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 따라 문화관광산업을 포함한 산업(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



국가적 가치

- 마한문화 연구 및 가마한사 복원 등을 통해 가야역사문화에 대한 재조명과 마한문화의 브랜드 제고 및 향후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국제엑스포 개최를 통한 마한문화를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국가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음



29



감사합니다.



‘영산강 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접근과 방향성’에 대한 토론문

조영광(전남대 역사교육과)

정재운 교수님께서서는 한국고대사사 연구의 전문가로, 주로 문헌사를 중심으로 고고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접목해 고대 국가 중에서도 여전히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 있는 백제와 마한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 노력하고 계십니다.

본 발표를 통해서 영산강 유역의 마한역사문화권 개발에 대한 당위성과 관련 조사연구 및 정비 현황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과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의나 문제점 제기보다는 마한의 역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역사는 기록의 학문으로, 역사상은 결국 기록을 토대로 복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한은 관련 기록이 과소한 관계로 지금까지 유적과 유물 같은 물질문화를 중심으로 국가 발달 정도와 사회·문화상 등을 추론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고대사학계에서는 5세기 이후 영산강 유역의 마한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실체가 부인되거나 정치적 독자성에 대해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연구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시기 백제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영산강 유역 소재 정치체가 남긴 유적과 유물에 대한 발굴 조사 작업이 활성화되고 관심이 증가하면서 그 역사적 실체를 백제와 구분되는 마한으로 규정하는 견해가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5세기 후반까지 백제와 구별되는 독자적 문화를 영위하며 영산강 유역에서 발전하였던 세력의 실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문헌에 기반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향후 마한의 역사상을 제대로 구명하기 위해 반드시 분석, 검토하여야 하는 문헌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 질문과 연계하여 마한만큼은 아니지만, 가야사 연구 또한 문헌 사료의 부족으로 그 역사상을 밝히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마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걸쳐 이루어진 지역 차원의 관심과 노력, 거기에 근년에는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면서 가야연맹체와 그 구성 소국들의 역사적 실체와 활동, 영역(혹은 문화권), 물질문화 등에 대해 적지 않은 부분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한사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한사 복원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어느정도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 가야사 연구에 비해 어떠한 강점이 있고,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3. 근초고왕의 남정이 있었던 4세기 말 이후에도 여전히 문화적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영산강 유역에서 대규모 고분군을 조영한 세력인 마한의 역사적 실체와 5세기 백제와의 관계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즉 지금까지 ‘마한’으로 통칭되고 있는 명칭과 백제로부터 어느 정도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시지요?

4. 끝으로 선생님께서 발표 중에 지적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마한사 구명과 이를 통한 역사문화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효율적 연대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다. 만약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려하신 대로 예산의 중복 편성, 개성 없는 행사의 지자체별 반복, 지역 이기주의와 우선주의에 따른 역사 왜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마한역사문화권에 속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마한사 복원 사업의 추진 과정과 결과물을 총괄 관리하고 직접 조정,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나 복안이 있으신지 여쭙어보고자 합니다.

마한정책세미나 토론 자료

○ 작성자	고병철(전남관광재단)
○ 내 용	마한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 자료
- 한국경제경영연구원 서재승 박사님의 가야역사 문화자원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마한역사 문화자원 활용방안 발표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해지역 가야 역사문화 자원과 영산강 주변의 마한 역사문화 자원의 연구와 활용 사례에 대한 상세한 비교자료는 마한역사 문화자원과 관련된 지자체에 많은 시사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역사문화권 정비법)이 금년 6월 10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제2조 1항에 '마한역사문화권: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시대의 유적 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3조 3항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2020년 11월 광주, 목포, 나주, 영암, 함평, 화순, 장흥, 담양, 신안, 해남 및 8개 유관기관이 마한문화권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안사업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나주와 영암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마한 축제, 통합 운영을 검토하기 위해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영암 내동리 쌍무덤 등 10개소를 국가사적으로 승격시킬 계획입니다. - 마한의 대표 유물인 옹관, 금동관, 금동신발이 발굴되는 영산강 유역의 500여개 고분군은 우리지역의 중요한 역사적 가치입니다.	

-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마한문화포럼의 주제가 '잠들었던 고대해상왕국 마한을 깨우다' 였듯이 아직도 땅속에서 발굴을 기다리고 있는 마한의 유적과 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해지역이 일찍이 가야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고, 박물관, 체험시설 등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다른지역 역사문화권 사업을 비교 분석하여 좋은 시책은 받아 들이고, 성격이 다른 분야는 차별화 하여 역사적 가치를 후세에 물려 주고, 세계사에 당당히 기재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마한역사문화권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발행일 2021년 12월 15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62383 광주광역시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Tel. 062-603-9600

FAX. 062-941-6705

<http://www.hiks.or.kr>

본 책자는 전라남도 지원 “2021년 남도정신문화 계승·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물이며,
여기에 실린 글과 도판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